Quantum Leap 2024+

글로컬	지역을 품은 글로벌 대학
앞선 연구	특성화·융합 연구 지원
열린 교육	도전, 소통, 창의 인재
산학 협력	지역과 상생하는 대학
성과 경영	지속가능한 운영 체제

동아대학교 홍보동영상

승학캠퍼스 49315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550번길 37(하단동)
구덕캠퍼스 49201 부산광역시 서구 대신공원로 32(동대신동 3가)
부민캠퍼스 49236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225(부민동 2가)

www.donga.ac.kr

블로그 blog.naver.com/donga_pr_bot
페이스북 facebook.com/dongauniv
인스타그램 instagram.com/donga_univ
유튜브 youtube.com/c/dongauniversity1946

동아는 지금
118번째 소식지
동아대학교

DONG-A UNIVERSITY since 1946

Dong-A University Newsletter Vol. 118

동아는 지금

Issue Focus 학기 주요 소식
Hot News 주요 행사 · 인물 동정
Dong-A People 동아인 인터뷰
Happy Donation 발전기금 소식

동아대학교,
그리고 동아인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118번째 소식지

승학캠퍼스 예술체육대학 2관

미래를 향해,
세계에 도전하는 동아인

동아대의 깊은 역사와 전통으로,
동아인의 남다른 기개와 패기로
임인년(壬寅年)에도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자.
세계를 무대 삼아 당당하게 걸어가자.
거대한 동문들이 그 길에 함께할 것이다.
막강한 동문의 힘이 그 길을 비춰줄 것이다.

Issue Focus

04 동아의 미래, 지속가능한 산학협력에서 답을 찾다
10 @연결과 #융합의 시대,
온라인 채널에서 또 다른 '동아'를 만나다

Hot News

14 '개교 75주년 기념행사' 개최
15 개교 75주년 기념 '자랑스러운 동아인' 선정
16 오픈 캠퍼스 미팅 행사 성황리 개최
17 학군단 리모델링 기념행사 성황리 개최
18 대학혁신지원사업 종합성과 평가 최우수 'A등급' 받아
19 MZ세대 맞춤 입시홍보 및 메타버스 캠퍼스 구축
20 지역사회 기여 프로그램 활발
21 국내 1,000대 기업 CEO 배출 부·울·경 지역 대학 2위
22 동아대 교수들, 정부·지자체 및 학회 표창장 대거 수상
23 동아대 교수들, 국제 저명 학술지에 줄지어 논문 게재
24 동아대 학생들, 활발한 대외활동으로 각종 대회 휩쓸어
25 스포츠단·운동 동아리 / 동문, 활약 눈길

Dong-A People

26 최초의 기록을 넘어 모교 제2의 전성기 위한 거름이 되다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28 학교의 자랑에서 사회의 기적 같은 인재로
정동식 의학과 교수(동아대학교병원 감염내과)
30 모교에서 받은 사랑, 후배들에게 전하다
김재혁, 오승택, 이세호 프로야구 선수

Happy Donation

32 발전기금 기부뉴스
39 발전기금 기부현황 / 후원의 집 소개
42 '만만한 도전' 캠페인 소개

동아대학교 소식지(통권 제118호)

발행일 2022년 03월
발행인 이해우
발행처 동아대학교 대외국제처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550번길 37(하단동)
T. 051)200-6042~3 F. 051)200-6015
www.donga.ac.kr / fund.donga.ac.kr
디자인 디자인대훈 051)898-0330

동아는 지금 제호 소개

동아대학교가 설립되기 10년 전 1937년 프랑스는 아르데코(art deco) 기를 맞고 있었다. 그 당시 프랑스를 대표하는 서체로 인정받은 「페뇨(Peignot)」는 1937년 파리 국제 박람회의 공식 서체로 지정된 오랜 역사의 서체로, 일정한 굵기 대신 획의 차이가 분명한 휴머니스트 산세리프에 가까운 서체이다. 직선과 곡선이 잘 어우러진 페뇨 서체의 특징을 한글에 접목해 「동아는 지금」의 오리지널 제호를 개발했다. 동아대학교의 오랜 역사를 담으면서도 현대적인 세련미를 녹여냈다. (제작 : 산업디자인학과 조교수 김재홍)

ISSUE FOCUS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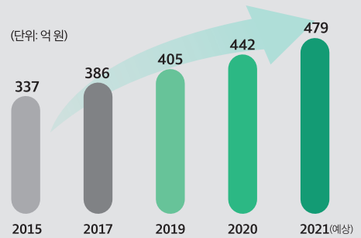
동아의 미래,
지속가능한 산학협력에서 답을 찾다

동아대학교가 한강 이남 최고의 명문 사학이라는 명성에서 그치지 않고 실무 중심의 혁신으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지역대학 위기라는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정성 있는 산학협력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동아대는 파격적인 교수 채용부터 동아 브랜드 개발, 부산광역시와 함께 지·산·학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오픈캠퍼스 미팅을 성황리에 개최하는 등 산학협력 강화를 위한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동아인을 실무형 인재로 키우고 대학과 산업계의 거리를 좁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아대 산학협력 성과

교외연구비 수주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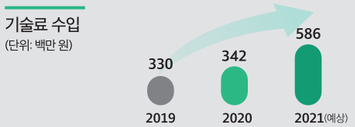
- 교외연구비 수주 약 30% 증가
  - ※ 2015년 337억 원 → 2021년 500억 원
  - ※ 2020년 이후 15% 이상 급증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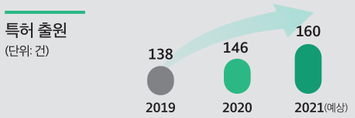


6년간 교외연구비 수주금액 131억 원 증가

성과확산 실적 증대

- 기술료 수입 및 특허 출원 실적 증가(약 77% 증가)
  - ※ 기술 이전 10억 원(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계약 체결
    : 췌장암 항체신약(PBP1510) 공동개발, 향후 부산시 강서구 내 R&D센터(4만 5000㎡) 건립 예정
- 기술지주회사 운영 활성화(매출액 기준 전국 12위)
  - ※ (주)세타랩 등 25개 자회사를 통한 고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





INDUSTRY-ACADEMY COOPERATION

산학협력 중심 대학으로의 확실한 도약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으로의 학생 유출, 청년 취업난,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시대 등 녹록치 않은 환경 속에서 동아대는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노력을 거듭하고 있다.

각종 인프라 구축과 학제 개편, 교육 혁신, 공유대학, 온라인 교육 확대 등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동아대는 이해우 총장 취임 직후부터 대학의 미래를 위해 '지속가능한 산학협력'을 중요 과제로 삼아 산학협력 강화에 더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20년 이해우 총장이 취임한 후 동아대는 산학협력을 선도하는 혁신으로 주목받고 있다. 동아대 산학협력 교외 연구비 수주는 2015년 337억 원에서 2021년 500억 원으로 2020년 이후 15% 이상 급증했으며, 성과확산 실적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이 총장이 동아대 신소재공학과 교수로 부임하기 전 1992년부터 2004년까지 삼성중공업에서 책임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쌓은 풍부한 경험과 철학이 반영된 것이다. 이 총장은 '교수가 한번 머리를 숙이면 학생의 인생이 바뀐다'는 생각으로 기업을 자주 방문하고 있다. 또 실무형 인재를 선호하는 기업 현장의 현실에 발맞추기 위해 산학협력 친화적인 교육 시스템과 현장 중심적인 커리큘럼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파격적인 채용 조건으로 선발하는 '산학 정년트랙 교수제'다. 보통 전임교원 채용 때는 박사 학위 이상이 필수 조건인데 석사 학위 이상, 산업체·기관 등의 경력 20년 이상을 내건 것이다. 논문 실적 중심이었던 재임용이나 승진 요건도 산학협력이나 학생 취업 실적을 중심으로 평가된다.

고기능성밸브 기술지원센터의 밸브 화이어 세이프티(Fire Safety)시험

'동아 브랜드' 개발 프로젝트도 눈여겨볼 만하다. 동아대는 고기능성밸브 기술지원센터(이하 밸브센터)를 중심으로 밸브 등 초고압가스 기자재 국산화를 진행 중이다. 미래 먹거리 산업인 '수소 산업'에 초점을 맞춘 초고압가스 기자재 개발은 동아 브랜드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현재 동아대는 이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동아 브랜드 발전위원회를 발족한 뒤 수소밸브를 시작으로 재활운동트레이닝(스포츠의학), 뉴트리코스메틱(식품영양) 브랜드 개발도 진행 중이다.

동아 브랜드로 우수한 제품을 생산해 판매하거나 기업에 기술을 이전하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 또 대학 자체 수익 사업이 가능해지면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어 일거양득(一擧兩得)이 아닐 수 없다.

이 총장은 "산학 전임교원을 채용하면 학생들의 실무능력이 향상돼 현장에 바로 투입해도 손색이 없을 것"이라며 "동아대 브랜드 사업을 통해 산학협력이 가속화되면 학생 취업도 한결 수월해지고 기업도 딱 맞는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어 상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의 미래 이끌 산학협력 비전과 'L2M Platform (랩 투 마켓 플랫폼)'

고기능성밸브 기술지원센터 공정 시연을 보고 있는 이해우 총장, 박형준 시장

동아대의 산학협력 비전은 부산시와 함께 개최한 '오픈캠퍼스 미팅' 행사와 동아 브랜드를 위한 'L2M(Lab to Market) Platform(가칭)' 건물 신축 추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성황리에 개최된 오픈 캠퍼스 미팅은 박형준 부산시장이 직접 대학을 찾아 학생, 기업 관계자 등과 만나 지·산·학 협업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 행사다.

행사는 산학관과 승학캠퍼스 대학본부 비욘드 라운지(BEYOND LOUNGE) 등에서 진행됐으며 이 총장, 박 시장, 김성재 산학협력단장, 고미자 부산시 청년산학창업국장, 대학원생, 학생 창업자 등 대학과 지자체, 기업체 관계자들이 골고루 참석했다.

토론에 앞서 우리나라 동남권 유일 미국선급협회(ABS) 승인 시험기관인 밸브센터가 '초저온밸브 누설시험 시스템'을 활용해 LNG저장설비(탱크 등) 및 LNG운반선·추진선에 적용되는 밸브의 성능을 검증하는 시험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또 동아대 교내 우수 연구자원 육성과 수익 창출을 위한 '동아 브랜드' 육성의 전초기지가 될 'L2M Platform' 신축 부지 시찰도 진행했다.

동아대는 이날 행사에서 '새로운 부산, 지·산·학 협력을 통한 미래 新산업 고도화 및 지식기반 생태계 조성'을 주제로 산학협력 비전 및 발전전략을 발표했으며 특히 '수소'와 '바이오메디컬', 'AI' 등 부산의 미래 新산업을 중심으로 지·산·학 협력을 위한 활발한 토론이 오가기도 했다.

L2M Platform 신축계획 조감도

이 총장은 "동아대의 강점인 밸브센터 등 교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수소산업 분야를 선도하는 등 대학의 자기주도적 혁신을 통해 지·산·학 협력의 좋은 모델이 되도록 책임을 다하겠다"며 "대학과 기업의 활발한 협력을 위해 부산시의 전폭적인 뒷받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L2M Platform'은 지난해 5월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동아대의 브랜드 가치 및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한 신축 공간이다. 승학캠퍼스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며 별도의 고압수소시험실이 있다. 이를 통해 바이오, 스포츠, 코스메틱 등 다양한 분야의 대학 브랜드를 육성하는 데 기여하고, 시험 범위를 확대해 수익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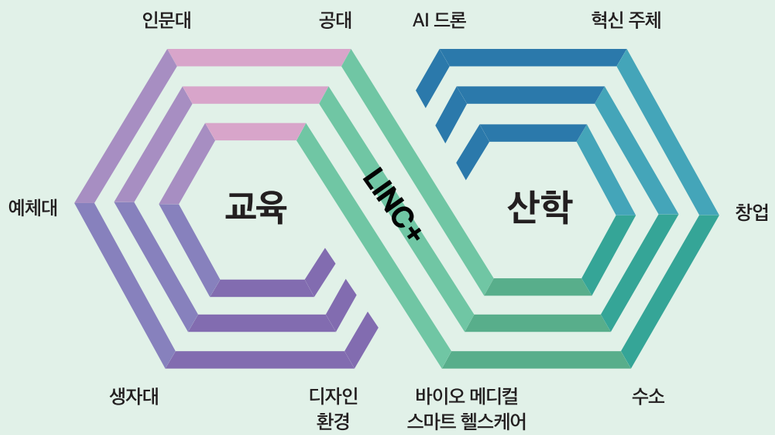
L2M

L2M Platform

지난해 5월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동아대 교내 우수 연구자원 육성과
수익 창출을 위한 '동아 브랜드' 육성의
전초기지가 될 신축 공간

구 분	내 용	비 고
사업 기간	2021.05.~2023.03.(23개월)	※ 주차대수: 총 106대 (자주식 46, 기계식 60)
건축면적	2,550.48㎡(약772평)	
연 면 적	4,600.96㎡(약1,392평)	
규 모	지하1층/지상5층, 지상1층 (별동: 고압수소시험실)	
주요시설	고기능성밸브 기술지원센터 시험 공간, 동아 브랜드 전시실, 연구/사업화 공간	

L2M Platform 신축 계획(안)



승학캠퍼스를 산학협력 특성화
플랫폼(Infinity Valley)으로 구축

공유·협업 시대, 특성화 분야 개발에도 집중

동아대는 이미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 산학협력 담당 조직을 설치해 공동 연구와 기술 이전, 각종 교류 사업을 통해 학계와 산업계 간 시너지를 내는 관계를 유지해왔다. 또 2000년대 이후부턴 '산학협력선도대학(LINC)'과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등 각종 정부사업의 탄력을 받아 이공계열뿐 아니라 전 학문 분야로 산학협력 분위기를 확대해가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현장 실습과 인턴십 제도 등으로 산업계를 보다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게 됐으며 산업계를 위한 동종 업종 간 교류회 및 세미나 지원, 장비 및 시설 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등 제도 활성화에 따라 체계적인 협력 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도 높아졌다.

동아대는 앞으로도 LINC 3.0에 대비해 공유·협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산·학·연 공동연구 및 기술 개발에 나서는 등 산학협력을 통해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극복할 것이다. 그 미래 전략으로는 크게 산학협력 특성화 플랫폼 구축, 특성화 분야 개발 집중, 지식 기반 생태계 조성을 들 수 있다.

산학협력 특성화 플랫폼 구축은 대학과 지자체, 기업이 협력해 승학캠퍼스를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특성화 플랫폼(Infinity Valley)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학이 지식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의 새로운 사업을 견인해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AI·드론(항공), 수소(저장·이송), 바이오메디컬 등 특성화 분야 개발에도 집중한다. AI·드론은 혁신성장동력 분야로 향후 5년간 9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에 동아대는 5G-AIOT 다중인지센서 기반 스마트 화재안전관리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 드론 글로벌 허브센터 유치를 진행 중이며 에코델타시티 디지털트윈 기반 스마트시티를 기획 중이다.

이외에도 수소, 바이오 메디컬 분야 개발이 있으며 지식 기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정부 육성 전략에 부합하는 창업, 교육에도 힘쓸 예정이다.

명실상부한 지·산·학 협력의 좋은 본보기가 되기 위해 동아대는 다른 대학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교수 채용부터 중장기 발전 계획을 추진 중이다. 시대 흐름에 맞춰 협력과 소통으로 산학협력의 새로운 길을 만들고 있는 동아대의 도전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Infinity Valley

- 무한한(Infinite/∞) 잠재력을 갖춘 'Infinity Valley' 조성
- 산학협력 특성화 분야 집중 육성

밸브 성능을 확인하고 있는 기술지원센터 연구원들

진심과 부단한 노력으로 성공한 산학협력 사례

고기능성밸브 기술지원센터

산학협력에 대한 자료는 넘쳐나지만 중요한 것은 산학협력의 실행, 기업과 대학의 견해 차이를 좁히는 것이다. 또 빠른 변화 속에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 그 대안 사례 중 하나가 바로 동아대 산학협력단 산하 밸브센터이다.

지난 2008년 7월 설립된 밸브센터(최정주 소장)는 15년째 운영되고 있다. 정부 지원은 10년뿐이었고 그 이후로는 자립 운영 중이다.

밸브센터의 산학협력 성공 비결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업들의 요구를 최대한 들어주기 위해 노력한 '진심'을 꼽을 수 있다. 현재 장비로는 지원이 되지 않는 시험을 위해 보조장치를 다는 등 부수적인 방법을 총동원했으며, 가장 정확한 데이터 값을 위해 반복 시험을 계속했다. 그 진심 어린 마음은 한 번 맺은 기업들과의 인연을 오래 지속할 수 있게 해줬다.

최정주 고기능성밸브 기술지원센터 소장(기계공학과 교수)

그 결과 밸브센터는 설립 2년 만인 지난 2010년 6월 국가기술표준원 KOLAS(한국인정기구)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았으며 2019년엔 역학시험 분야에 대해 추가 인정을 획득, 총 6개 분야 17개 규격에 대한 KOLAS 공인시험성적서 발급이 가능해졌다. 또 지난 2021년엔 국내 기관 중 기계역학 분야로는 최초로 미국선급협회(ABS) 승인 시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2년도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 신규 기획과제'에도 선정되며 '동아 브랜드'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ISSUE FOCUS 02

@연결과 #융합의 시대, 온라인 채널에서 또 다른 '동아'를 만나다

새 학기를 맞아 대학 생활이 낯선 새내기 학생들에게 온라인 채널이 유용한 정보통이자, 상호 연결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나날이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학생과 교직원, 동문, 예비 신입생 및 학부모 등과 폭넓게 소통하며 이목을 끌고 있는 동아대의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공식 온라인 채널을 살펴보자.

@동아, #23만 동문의 힘을 느끼다!

동아대는 온라인 채널 운영에 있어 학생 눈높이에 맞춘 콘텐츠 제작과 다양한 플랫폼 성격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동아대는 온라인 홍보채널에 있어 과감한 시도와 변화를 꾀하고 있다. 무엇보다 기존의 뉴스나 대학소식 전달 차원의 일차원적인 창구 기능에서 벗어나 양질의 콘텐츠 제작으로 학생들이 캠퍼스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큰 특징이다.

앞서 동아대는 2017년 9월, 온라인 홍보채널을 정식 오픈하는 등 온라인 홍보에 있어 발 빠른 대처와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이를 위해 학생 홍보 서포터즈인 '다메이트(DA;MATE)'를 출범시키는 등 온라인 홍보 기반을 구축하기도 했다.

'다메이트'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이어지면서 제대로 된 캠퍼스 라이프를 누리지 못한 MZ세대(밀레니얼+Z세대)들의 감성을 이끌어내는 등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김대경(왼쪽에서 일곱 번째) 대외협력처장, 홍보서포터즈 '다메이트' 학생들

공식 온라인 채널의 주축, 다메이트(DA:MATE)

동아대 온라인 홍보 서포터즈 '다메이트'는 학교 공식 SNS 채널의 콘텐츠 제작과 운영을 맡고 있다. 지난 2017년 출범 이후, 2022년 현재 10기가 활동 중이며 매 기수 콘텐츠 재정비를 통해 다양한 정보 제공과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에는 '동아강의아카이브(인기 강의 소개)'와 '여기에 DA 있다(학교생활 정보)', '동아글로벌 에어(외국인유학생 인터뷰)', '두비동아(학과 Q&A 브이로그)', '동아의 하루(동아인의 일기장)', '수고했어 동아in(캠퍼스 사진)', '동아쓰(동아대 학생들이 말하는 꿀팁)', '동아앱스(유용한 어플 추천)', '자취생의 일기(자취생활 정보)', '동아다방(랜선 집들이)', '수줍은TMI(교수 인터뷰)', '선배! 어디가?(선배에게 듣는 진로 및 취업 상담)', '동아의 오후(동아인 브이로그)' 등을 선보였다.

'다메이트'의 이러한 활약으로 그간 동아대 공식 블로그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콘텐츠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불러모았다. 온라인 채널의 개설 초창기와 비교해보면 페이스북 팔로워는 6천 명대에서 현재 1만 7천 명대로 늘었고, 공식 블로그 누적 방문자는 530만 명(2022년 2월 말 기준)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컬러가 확실한 공식 온라인 채널별 특징

최근 MZ세대에게 인기를 끌며 화려하게 부활한 블로그는 'Focus동아', 'Press동아', 'Tips동아', 'Enjoy동아', 'Photo동아' 섹션으로 구분해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풍부한 텍스트와 이미지 그리고 동영상 등을 담을 수 있는 기능을 활용해 '동아대를 알차게 이용하는 방법'이나 '강의 평가를 자세히 알아보자' 등 보다 심도 있고 유용한 정보 제공에 기여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페이스북은 팔로워 간에 형성된 네트워크 측면을 강화하고 있다. 채널 기능에 충실한 콘텐츠로 화제의 동문 소식과 뉴스레터, 핫 이슈 등 대외적 소식 등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동아대는 1만 7천 명이라는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소통과 관계 유지 측면에서 매우 유용한 홍보 채널이기 때문이다.

공식 인스타그램에서는 카드뉴스나 스토리 등 짧고 간결하면서도 직관적인 콘텐츠를 제공한다. 특히 최근에는 '동아의 하루'나 '이제 막 이사한 자취생의 집' 등 스토리에 영상 기능을 집약한 '릴스'를 선보이는 등 다양한 시도로 학내 구성원들의 공감과 감성을 이끌어내고 있다. 또한 구독자 3천여 명의 공식 유튜브는 대학생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기반으로 질 높은 시리즈물이나 각각의 주제를 3~4분 내외로 구성 편집한 에피소드를 주기적으로 업로드하고 있다. 그중 '동아인이 말하고 동아인이 공감하는 동아인의 이야기'를 콘셉트로 다양한 정보들을 알려주는 '동아쓰'라는 영상은 예비 신입생들과 재학생들에게 큰 인기다. 뿐만 아니라 4K 해상도로 촬영된 승학캠퍼스 드론 영상과 캠퍼스 투어 영상, 홍보대사 브이로그 등은 현장감이 느껴지는 생생한 화질과 높은 퀄리티로 화제가 됐다.

다메이트 추천 콘텐츠 Best 5

❶ 동아쓰 이유진 학생, 9기 미디어팀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예비 동아대인이나 재학생들이 궁금해 하는 정보 제공

❷ 수줍은 TMI 이승연 학생, 8기 디자인팀

교수님들을 직접 인터뷰하는 콘텐츠로 강의 꿀팁이나 강의를 듣기 전 참고할 만한 내용 소개

❸ 동아앱스 김채현 학생, 8기 취재팀

매회 다양한 태블릿 전용 어플을 소개해 유용한 정보 제공

❹ Dong-A Global Air 김진희 학생, 9기 디자인팀

교환학생 및 유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제작하는 카드뉴스형 콘텐츠

❺ 동아의 하루 조경서 학생, 9기 취재팀

다양한 학과 학생들이 직접 자신의 일기를 들려주는 공감형 콘텐츠

MINI INTERVIEW

동아대 온라인 홍보 서포터즈 **다메이트(DA:MATE)**

김현진 학생
다메이트 대표, 태권도학과 4학년

이번 다메이트 10기는 손예은 학생(미디어팀, 중국학과 21학번), 이민솔 학생(미디어팀, 경영학과 19학번), 박민지 학생(취재팀, 철학생명의료윤리학과 20학번)까지 총 3명의 팀원을 선발했는데요. 방학 동안 다메이트가 되기 위한 교육기간을 거쳐 3월부터 정식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다메이트는 학생들과 SNS 채널로 소통하는 역할로, 맡은 업무의 중요도가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각 채널별로 특성화된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의 경우 글 위주로 작성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보다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가독성이 좋은 글을 쓰려고 노력하며,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인스타그램은 보다 친근감 있는 카피를 고심해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의 경우 미디어물을 통한 정보 전달이 가능해 다른 채널보다 세세하고 재밌는 정보 위주로 제공하고 있으며, 페이스북은 학교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보다 포괄적으로 알리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시기에 학생들의 SNS 사용 시간이 자연스럽게 늘어남에 따라 서로 간 결속력과 유대감을 높일 수 있는 콘텐츠 그리고 유용하면서도 재밌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팀원들과 함께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DONG-A SNS

동아대학교 공식 SNS 채널 안내

- blog.naver.com/donga_pr_bot
- facebook.com/dongauniv
- instagram.com/donga_univ
- youtube.com/c/dongauniversity1946

동아대학교
SNS 바로가기

01

석당학술상·근속상·공로상 동아미래인재상 등 시상

‘개교 75주년 기념행사’ 개최

학교법인 동아학숙 설립 및 동아대 개교 75주년 기념식 모습

(왼쪽부터) 최규환 교수, 이해우 총장, 이무연 교수, 권영철 교수

동아대학교는 지난해 10월 29일 부민캠퍼스 다우홀에서 ‘학교법인 동아학숙 설립 및 동아대학교 개교 75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교직원과 학교법인 관계자, 동문, 표창 수상자 등이 참석했으며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했다.

이해우 총장은 “취임 후 지난 1년 여 동안 동아대에는 혁신을 향한 변화의 물결이 일었다”며 “산학 정년트랙 교수제 도입·동아 브랜드 개발 등 산학협력 친화적인 교육 시스템과 실무형 인재 양성을 통해 동아대만의 생존전략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신정택 총동문회장(세운철강 회장)은 “75년 역사와 전통을 회복하고 미래를 향한 의지로 지역대학의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자”며 “앞으로 선배를 능가하는 후배들이 많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교를 빛낸 동문에게 수여하는 ‘자랑스러운 동아인상’은 장복만 (주)동원개발 회장과 공한수 부산 서구청장에게 돌아갔다. 탁월한 연구업적을 보인 교원에게 시상하는 석당학술상 ‘학술상’ 부문은 최규환 관광경영학과 교수와 이무연 기계공학과 교수, ‘특별상’ 부문은 권영철 정보수학과 교수가 수상했다.

최 교수는 최근 5년간 책임저자로 SSCI 논문 7편(JCR 랭킹 상위 10% 이내 2편)을 게재했고 재직기간 동안 12개 연구과제에 선정돼 학술연구비 수주에 공헌했다. 이 교수는 차세대 이차전지 열 관리 분야에서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도출했고 ‘수소연료전지 차량 상용화 기술’을 개발하는 등 최근 5년간 책임저자로 SCI(E) 논문 28편(JCR 랭킹 상위 10% 이내 11편)을 게재했다. ‘특별상’ 부문의 권 교수는 응용수학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실적을 바탕으로 최근 5년간 책임저자로 SCI(E) 논문 34편을 게재하는 등 재직기간 동안 SCI(E) 논문 112편(책임저자 101편)을 게재했다.

송관호(법학전문대학원)·이선희(패션디자인학과)·최홍조(의학과) 교수는 공로상을 수상했다. 송 교수는 검사·군법무관 등 특별지도로 우수 법조인 양성, 이 교수는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실사업 수주, 최 교수는 대장암 부문 우수한 연구업적과 임상실적으로 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학교의 미래를 빛낼 재학생에게 주어지는 ‘동아미래인재상’ 수상자로는 이성민 산업디자인학과 4학년 학생이 선정됐다. 그는 LINC+사업단 지역사회 문제해결 프로그램에 참여해 자살예방 캠페인과 아동학대 예방 영상 제작으로 사회 문제 해결에 힘썼고, ‘환경부 2050 탄소중립 영상 공모전’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김현숙 음악학과 교수 등 8명의 교원과 김영근 종합농장 직원 등 9명은 30년 근속상을, 이종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14명의 교원과 남경문 교무과장 등 4명의 직원은 20년 근속상을 받았다. 이 밖에도 10명의 직원에게 ‘모범직원상’을, 7명의 직원에게는 ‘올해의 직원상’을 수여했다.

02

장복만 (주)동원개발 회장·공한수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개교 75주년 기념 ‘자랑스러운 동아인’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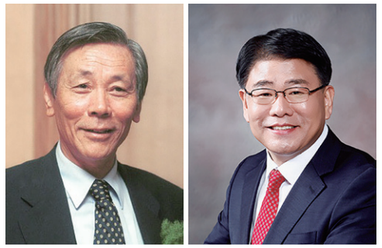
(왼쪽부터) 장복만 동원개발 회장, 이해우 총장, 공한수 부산 서구청장

동아대가 개교 75주년 기념 ‘자랑스러운 동아인상’ 수상자로 장복만 (주)동원개발 회장과 공한수 부산시 서구청장 등 2명을 선정했다. 시상은 지난해 10월 29일 열린 ‘학교법인 동아학숙 설립 및 동아대학교 개교 제75주년 기념식’에서 진행됐다.

동아대 법학과 출신인 장 회장은 명예학사(2017년)와 명예박사(2019년) 학위를 수여받았다. 장 회장은 1975년 부산에서 동원개발을 창립해 부산·울산·경남지역을 대표하는 1위 건설기업으로 이끌었다. 또한 ‘동원로얄듀크’와 ‘비스타동원’ 등 아파트 대표 브랜드로 키워냈으며 수도권에도 진출해 전국구 건설사로 입지를 다졌다.

장학사업과 교육사업 등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다. 장 회장을 비롯해 아들 삼형제는 ‘아너 소사이어티(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에 이름을 올린 ‘기부 명문가’로 잘 알려져 있다. 지난 2020년에는 동아대 개교 100주년을 대비한 학교사랑 캠페인 ‘동아 100년 동행’에 발전기금 5억 원을 기부해 화제를 모았다.

공 서구청장은 동아대 정치외교학과와 일반대학원 정치학과 석사를 졸업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 당선됐으며, 2019년과 2021년엔 ‘전국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공 서구청장은 재임 중에 ‘송도용궁구름다리’ 개통을 완료해 서구



(왼쪽부터) 장복만 동원개발 회장, 공한수 부산 서구청장

해양관광 인프라를 강화했고, ‘천마산 복합전망대 및 관광 모노레일’ 조성사업, 의료관광특구 지정도 추진하는 등 서구 관광사업 활성화와 주민복지 증진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장 회장은 시상식에서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하겠다”며 “수많은 인재를 배출한 모교 발전에 조그만 힘이나마 된다면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 공 서구청장은 “큰 상을 주셔서 굉장히 영광스럽다”며 “동아인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모교와 서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03

부산광역시와 함께 지·산·학 발전 논의

오픈 캠퍼스 미팅 행사 성황리 개최

승학캠퍼스 대학본부 '비욘드 라운지(BEYOND LOUNGE)'에서 열린 '오픈 캠퍼스 미팅' 참석자들

지난해 12월 8일 동아대는 부산시와 함께 지·산·학 협업 강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오픈 캠퍼스 미팅'을 개최했다.

'오픈 캠퍼스 미팅'은 박형준 부산시장이 직접 대학을 찾아가 학생, 기업 관계자 등을 만난 뒤 지·산·학 협업 강화와 대학의 혁신 유도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을 펼치는 행사다.

이해우 총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김성재 동아대 산학협력단장 등 대학과 지자체,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오픈 캠퍼스 미팅은 승학캠퍼스 대학본부 '비욘드 라운지(BEYOND LOUNGE)'에서 진행됐다. '새로운 부산, 지·산·학 협력 통한 미래新산업 고도화 및 지식기반 생태계 조성'을 주제로 동아대 산학협력 비전 및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수소·바이오메디컬·AI 등 부산 미래 신산업을 중심으로 활발히 토론했다.

박 시장은 "오랜 시간 교수로 몸담고 시장직을 수행하기까지 밑거름이 되었던 동아대에 오니 마음의 고향에 온 듯 편안하다"며 "부산 산업발전과 기업유치를 위해 인재를 키우고, 지·산·학 협력으로 부산을 진정한 산학협력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동아대는 특성화 전략과 우수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대학혁신지원사업 등 다양한 교육사업과 산학협력 사업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지난 2020년 이해우 총장 취임 후에는 전국 대학 최초로 논문 실적이 아닌 기업체 경력을 우선으로 하는 '산학 정년트랙 교수제'를 도입하고 연구실에서 이뤄낸 기술을 상용화해 대학 수익사업으로 연결하는 '동아 브랜드'를 개발했다. 앞으로도 동아대는 산학협력 친화적인 시스템을 확고히 해나갈 계획이다.

이해우 총장과 박형준 시장의 'L2M(Lab to Market) Platform' 신축 부지 시찰 모습

04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특강 등

학군단 리모델링 기념행사 성황리 개최

(왼쪽부터)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이해우 총장

남영신 육군참모총장과 특강 참석자들

동아대는 지난해 11월 19일 동아대 총동문회 및 117ROTC 총동문회와 함께 '학군단 리모델링 기념행사 및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특강'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승학캠퍼스에서 열린 행사에는 이해우 총장과 남영신 육군참모총장(동아대 교육학과 81학번·학군 23기), 고현석 소장(25사단장, 동아대 산업공학과 87학번·학군 29기), 조성제 ROTC 총동문회장을 비롯한 ROTC 동문회 관계자, 국민수 학군단장, 학군 후보생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선 남 참모총장이 ROTC 후배들을 대상으로 특별강연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남 참모총장은 "앞으로 지휘관이 될 여러분이 소대원들에게 진정한 마음을 주고 가진 것을 희생하며 감성으로 부대를 지휘하겠다는 생각을 가졌으면 한다"며 "과감하게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생각으로 지금 가장 부족한 것을 공부하고 준비하라"고 격려했다.

앞서 이 총장을 비롯한 본부 보직 교수들과의 환담 자리에서 남 참모총장은 "재학 시절부터 늘 모교에 자부심을 갖고 있어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며 "학군단 건물 리모델링과 후학 양성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교수님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23만 동문을 대표해 훌륭한 분을 어렵게 모셨는데 바쁜 일정에도 누구 못지않은 애교심으로 한달음에 모교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오늘 강연은 후배 학군 후보생들의 마음에 길이길이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1961년 전국 최초로 창설돼 올해 60주년을 맞은 동아대 학군단은 대대적인 건물 리모델링을 거쳐 이날 후보생 강의실과 생활지도실·샤워장·화장실·옥상 등 새 단장한 공간을 선보였다. 지난 2018년 개관한 '동아대 학군단 역사관'에는 남 참모총장의 기(旗)도 전달됐다. 동아대 ROTC총동문회는 학교 발전기금을 기부하기도 했다.

동아대 학군단은 남 참모총장과 정종민 예비역 소장, 고현석 소장, 이종언 준장, 강부봉 준장 등 지금까지 5명의 장군을 비롯해 총 4,400여 명의 학군장교를 배출했다.

05

대학혁신지원사업

종합성과 평가 최우수 'A등급' 받아

지난해 11월 승학캠퍼스 대학본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대학혁신지원사업 구성원 성과 공유회'

지난해 12월 7일 부산 해운대구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2021년 대학혁신지원사업 부산·울산·경남권역 성과포럼' 참석자들

동아대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2021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 평가에서 최우수 'A등급'을 받았다. 이로써 동아대가 3년간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지원받은 금액은 200억여 원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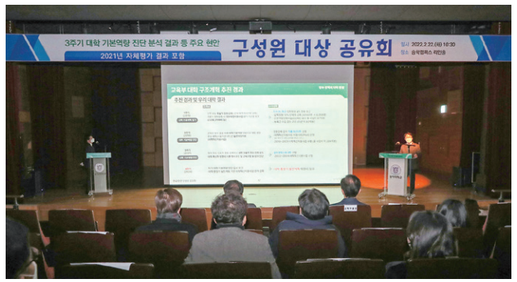
동아대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전략과 추진실적이 대학 중장기발전계획과 체계적으로 연계돼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강화한 '마이크로모듈 교육과정 및 이중전공제' 도입으로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융·복합 교육 강화, 유연학사제도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코로나19 이전 시범사업 운영도 눈길을 끌었다.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스마트러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선제적 대응이 돋보였고, '원격수업관리위원회'와 '원격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비대면 수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한 점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대학혁신사업단은 사업성과 공유와 확산을 위한 각종 포럼도 활발히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7일 부산 해운대구 파라다이스호텔에서는 '2021년 대학혁신지원사업 부산·울산·경남권역 성과포럼'이 성황리에 열렸다. 또 3년간의 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 성과 공유 및 확산을 위한 '대학혁신 성과포럼'도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대학혁신 성과포럼은 유튜브 채널(https://youtu.be/OfspVcr04Fs)과 가상대학(LMS)을 통해 시청 가능하며 '대학혁신을 통한 학생성공 사례 공유' 주제의 발표 및 브이로그 영상으로 구성돼 있다.

이 밖에도 두 차례에 걸쳐 '2021년 대학혁신지원사업 구성원 성과 공유회'를 개최해 연차평가 및 종합평가 결과와 3차년도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예산 운용 및 사업비 집행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한편 동아대는 지난 2월 23일 '3주기 대학 기본역량 진단 분석 결과 등 주요 현안 구성원 공유회'를 개최, 향후 고등교육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방향을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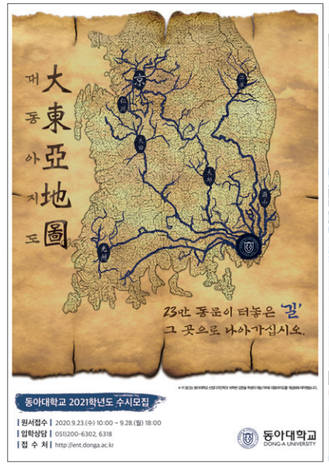


지난 2월 23일 '3주기 대학 기본역량 진단 분석 결과 등 주요 현안 구성원 공유회' 개최

06

재학생 재능기부로

MZ세대 맞춤 입시홍보 및 메타버스 캠퍼스 구축



(왼쪽부터) 산업디자인학과 학생들의 재능기부로 제작된 수시모집 신문광고와 지하철광고 / (오른쪽 하단) 2022학년도 수시모집 광고 제작에 참여해 표창장을 받은 산업디자인학과 학생들, 김재홍 교수(맨 왼쪽), 신상문 입학관리처장(맨 오른쪽)

동아대가 재학생들의 재능기부로 MZ세대 수험생을 위해 맞춤 입시홍보를 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수시·정시모집 미디어 광고와 고교 방문 입학설명회, 전공체험 행사 등에 재학생들이 활발히 참여해 수험생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다.

동아대는 지난 2017년부터 산업디자인학과 학생들의 재능기부 작품으로 제작한 수시·정시모집 광고를 신문지면과 각종 매거진 등에 싣고 있다. 지금까지 참여한 학생도 90여 명에 이른다.

지난 26년간 350여 명이 거쳐 간 홍보대사 '예그리나'는 학교 홍보책자 모델, 캠퍼스 투어, 모교 방문단, 고교 방문 입학설명회, 진로진학박람회, 입학상담 등 교내·외에서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학교를 알리고 있다.

튜터팀 '고온'도 빼놓을 수 없다. 지난 2012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고온'은 고교 자유학년제 지원 및 중학생 진로설계 역량 강화 활동, 멘토링, 전공상담소, 새내기 Cheer up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고 있다. 이 밖에도 '고교 방문 전공설명회'와 '다우림 전공체험', '우리 동아 예체능', '학과소개 영상 제작' 등 일반 재학생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다.

특히 동아대는 재학생들의 재능기부로 대표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인 네이버 '제페토'에 가상캠퍼스를 구축하기도 했다. 모바일에서 제페토 앱으로 접속해 '월드' 메뉴에서 '동아대학교'를 검색하면 바로 입장할 수 있으며 365일 누구나 24시간 가상캠퍼스에 방문해 실제와 비슷하게 구현된 캠퍼스를 둘러볼 수 있다. 또한 수시 및 정시모집 원서접수 기간에는 입학사정관과 수험생들이 가상공간에서 만나 입학 상담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경영대학은 지난 2월 말 '2022학년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메타버스 플랫폼 '게더타운'에서 진행, 신입생들의 호응을 얻기도 했다.

(상단부터) 메타버스로 2022학년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개최한 동아대 경영대학 / 메타버스 플랫폼인 네이버 '제페토'에 구현된 부민캠퍼스

07

ESG경영 실천·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등

지역사회 기여 프로그램 활발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부산 동구청 1층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동구형 골목길 재생 리빙랩' 참여단 발대식 / 동아대 LINC+사업단 등 주관으로 열린 서부산권 혁신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산학협력 업무협약 / 동아대와 LINC+사업단에서 진행한 '국제시장 일원 활성화를 위한 프로모션 디자인 연구보고서' / 동아대 산업디자인학과가 진행한 부산 북구 숙등마을 상생점포 BI 개발 프로젝트

동아대가 지역사회 기여 프로그램을 활발히 전개, 거점 사립대학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ESG경영'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지난해 2학기부터 ESG경영 실천을 교육하는 교양과목인 '함께 해결하는 사회문제'를 개설했다. 동아대 중점교양 과목인 '함께 해결하는 사회문제'는 시민으로서의 개인과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와 갈등을 이해하고 지식·아이디어·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설계됐다.

이 과목은 O2O(Online-to-Offline) 방식으로 운영, 'Pass-Fail'로 학점이 부여되며 공공기관(코레일유통 부산경남본부)과 동아대 학생이 직접 연계해 캠페인 활동·푸드 유통과정 개선·유휴공간 활용 방안 등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지역 현안을 함께 해결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LINC+사업단은 동아대를 비롯한 서부산권 7개 대학이 공동주관한 '제2차 서부산권 지역혁신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포럼은 '서부산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위한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열렸으며, 토론의 장 등을 통해 미래의 지역발전 전략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부산시 동구청과 운영할 골목길 재생사업의 하나인 '동구형 골목길 재생 리빙랩'도 눈길을 끈다. 이번 프로그램은 대학과 지자체가 협력하고 지역주민 주도로 도시문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양건석 조경학과 교수가 주도하고 (사)100만평문화공원조성범시민협의회가 함께하는 부산 사하구 '대티까치고개마을 온실 기공식'도 성황리에 개최했다. 두 기관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주민참여형 온실'을 조성하고 마을정원사 양성, 고부가 가치 작물을 키워 마을소득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동아대와 LINC+사업단, 부산시 중구가 국제시장 일원 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관학협력사업도 마무리했다. 동아대 산업디자인학과(서종환 책임교수, 김재홍 담당교수) 수강생이 18개의 팀을 이뤄 '국제시장 일원 활성화를 위한 프로모션 디자인 연구보고서'를 발간했고 랜선투어 콘셉트로 제작한 홍보영상은 중구청 유튜브 채널과 국제시장 전광판을 통해 볼 수 있다.

산업디자인학과는 부산 북구청의 숙등마을 BI(Brand Identity) 개발 프로젝트에 참가, 숙등마을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숙등마을 상생점포 B.I, 숙등마을 청춘길 간판 등 디자인 활동을 펼쳤다.

아동학과는 '아동학대 예방을 통한 다 같이 행복한 부산 만들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LINC+사업 지역사회 문제해결 프로그램의 하나로 아동학과와 부산 서구청, 세이브더칠드런 남부지부가 함께 진행했으며 교수와 아동학과 재학생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아동학과는 이 프로젝트로 '긍정적 자녀양육 부모교육'과 '아동 권리교육', '아동친화 놀이터 조성 벽화작업',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취약계층 아동 놀이지원사업' 등을 진행했다.

08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장복만 (주)동원개발 회장 등

국내 1,000대 기업 CEO 배출 부·울·경 지역 대학 2위

승학캠퍼스 전경

동아대가 부·울·경 지역 대학 가운데 국내 1,000대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를 두 번째로 많이 배출한 것으로 나타나 다시금 저력을 확인했다. 영남권 전체 대학에서는 4위이다.

동아대 출신의 대표적인 CEO로는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 장복만 (주)동원개발 회장, 손연호 경동나비엔 회장 등이 있고 최연소 CEO는 김태환 삼보산업(주) 대표가 있다.

동아대 출신 CEO가 많은 이유는 부·울·경 지역이 수도권 다음으로 상장회사가 많고, 인재 배출 저력이 여전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09

부민캠퍼스 후문 인근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

어학연수생 위한 한국어학당 개관

동아대가 한국어 어학연수생을 위한 '동아한국어학당'을 개관했다. 한국어학당은 부민캠퍼스 후문 인근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졌으며 강의실 6곳과 한국어강사실, 라운지 등으로 구성됐다. 학기당 18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으며, 기존 한국어강좌 시설에 더해 연 수용인원이 720명 증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오민홍 국제교류처장은 "강의시설 등 교육환경 개선으로 유학생들에게 더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우수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는 발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동아한국어학당 개관 기념식에 참석한 이해우 총장(왼쪽에서 다섯 번째), 동아대 국제교류과, 건설관리본부 등 관계자들

10

건강관리학과

보건의료정보관리 교육과정 최종인증 획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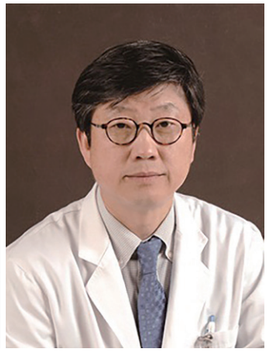
동아대 건강과학대학 건강관리학과가 한국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평가원으로부터 '2021년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과정 최종인증'을 획득했다. 국가면허인 '보건의료정보관리사'를 배출하는 보건의료정보관리 교육과정 전체 평가영역에서 100%를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주기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과정 평가인증기간은 5년(인증3년+예비인증2년)이다. 이로써 동아대 건강관리학과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국제적 수준의 보건의료정보관리 분석능력을 갖춘 보건의료정보 전문인력을 양성,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의료산업발전에 기여할 예정이다.

한국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평가원의 '2021년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과정 최종인증' 증서를 들고 있는 건강관리학과 교수들

11

동아대 교수들 활발한 대외활동으로

정부·지자체 및 학회 표창장 대거 수상



(왼쪽부터) 오민홍 경제학과 교수, 최낙복 한국어문학과 명예교수, 신상문 산업경영공학과 교수, 김무현 의학과 내과학교실 교수

동아대 교수들이 활발한 연구와 대외활동으로 정부·지자체, 학회 표창장을 대거 수상했다.

오민홍 경제학과 교수는 일자리 창출 지원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다양한 취업지원제도 개선에 힘쓰며 지난 2017년부터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 노사갈등 해소에 기여한 결과이다. 최낙복 한국어문학과 명예교수는 한글과 한국어 발전에 헌신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최 교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제575돌 한글날에 온라인으로 펼친 한글주간 행사에서 한글 발전 유공자로 선정됐다.

신상문 산업경영공학과 교수는 기술인재를 육성해 중소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고 정호원 분자유전공학과 교수는 산학협력 유공자로 선정돼 교육부장관상을 받았다. 현재 동아대 산학협력단 부단장을 맡고 있는 김준형 화학공학과 교수는 '기술사업화를 통한 이공계 일자리 발굴'과 '대학 간 산학협력 제고' 등에 기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박준홍 창업지원단장(기계공학과 교수)은 부산의 산업 발전과 학생들의 지식재산권 교육 등에 이바지한 공으로 부산광역시장 표창장을 받았다. 박현태 건강과학대학장은 고령친화바이오산업 육성 등에 이바지한 공로로 부산광역시장 표창장을 수상했다.

신진 한국어문학과 명예교수는 2019년에 펴낸 시집 <석기시대>로 제7회 문덕수문학상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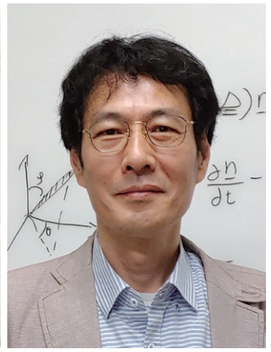
김무현 의학과 내과학교실 교수는 심장학 분야의 학술 업적과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심장학회 학술상을 받았고 대학원에서는 이동규 기업재난관리학과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이 '재난대응상황에서 소방조직의 리더십에 대한 주관적 인식 연구'를 수행, 한국융합과학회 우수 학술상을 받았다. 최이숙 사회학과 교수는 <"우리는 더디지만 나아가고 있다": '미투 운동(#MeToo)' 이후 성 평등 보도를 위한 한국 언론의 실천과 과제(장은미, 최이숙, 김세은 공저)>의 교신저자로 참여,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제11회 학술상'을 받았다. 최민철 경영학과 교수는 학생 창업에 대한 실무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정책 필요성을 강조해 한국경영컨설팅학회 최우수논문상과 한국전략마케팅학회 우수논문 발표상을 잇따라 받았다.

이현섭 기계공학과 교수는 한국정밀공학회지 편집인과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며 학술지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한국정밀공학회지 공로상을 받았다. 사회과학대학 라광현 경찰·소방학과 교수는 사이버범죄 예방과 문제의식 확산 등에 기여한 공로로 부산광역시경찰청장 감사장을 받았다.

12

국제 저명 학술지에

동아대 교수들 줄지어 논문 게재



(왼쪽부터) 김재현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이헌상 화학공학과 교수, 김기수 석당박물관장, 함정임 한국어문학과 교수

동아대 교수들이 우수한 연구 성과로 국제 저명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재현 고고미술사학과 교수는 '한국어 기원이 9,000년 전 중국 동북부 요하의 농경민에서 비롯됐다'는 <네이처(Nature)> 연구논문 공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네이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과학 잡지로, 대부분의 게재 논문이 생명과학 분야인 만큼 인문학자가 공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것은 드문 일이다.

화학공학과 BK-21FOUR 교육연구단 이헌상 교수팀은 4세대 나노카본으로 유망한 '그래핀 메소튜브(Graphene Mesotube)' 대량생산 방법을 개발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재료 분야 저널인 <어드밴스드 펑셔널 머티리얼즈(Advanced Functional Materials)>에 온라인 게재됐다. 이헌상 교수는 한국고분자학회가 발간하는 SCIE저널 폴리머(Polymer(Korea))지 편집위원장에 선임되기도 했다.

화학공학과 BK-21FOUR 교육연구단 김수환 교수팀은 인공 멜라노좀을 제작, 자외선으로부터 피부 조직 및 세포를 보호하는 생체 모방 시스템 개발 성과를 거뒀다.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 학술지 <어드밴스드 사이언스(Advanced Science)>에 온라인 게재됐다.

홍영빈 의과대학 중개의과학과 교수가 포함된 연구팀은 미국 존스홉킨스대, 서던캘리포니아대 연구진과 공동연구로 루게릭병 환자에게 나타나는 지질대사 이상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치료법을 발굴, 신경생물학 최고 권위지 <네이처 뉴로사이언스(Nature Neuroscience)>에 논문을 게재했다. 김동훈 의과대학 약리학교실(대학원 중개의과학과) 교수가 포함된 연구팀은 파킨슨병 유발 위험인자 GCase의 조절 단백질 'TRIP12'를 발굴하는 연구성과를 거뒀다. 김 교수는 테드 도슨(Ted Dawson) 존스홉킨스대 교수, 고한석 존스홉킨스대 교수와 공동으로 <뉴런(Neuron)>에 논문을 게재했다.

한편 동아대 교수들은 정부기구 위원 선출 및 저서 발간을 통해서도 주목을 받았다. 김기수 석당박물관장(건축학과 교수)이 문화재청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근현대분과위원장에 선출됐으며 차경천 경영학과 교수, 이동규 대학원 기업재난관리학과 교수와 젠더·어펙트연구소(소장 권명아 교수)가 펴낸 책들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21년 세종도서 학술부문' 사회과학 분야에 나란히 최종 선정됐다.

소설가로 활동하는 함정임 한국어문학과 교수의 작품은 전 세계 독자에게 작품을 소개하는 온라인 문예지 <아심토트(Asymptote)>에 소개되는 성과를 이뤘다. 이번에 소개된 작품은 이상문학상 수상작 <저녁 식사가 끝난 뒤>로 영문 제목은 <After Dinner>다.

13

동아대 학생들

활발한 대외활동으로 각종 대회 휩쓸어

(왼쪽부터) 전기공학과 학술동아리 '람다' 엄정기, 고경보, 배건우, 송윤승 학생 '스마트 에너지 경진대회' 대상 수상

전기공학과, 컴퓨터공학과 학생들 '2021 전력 빅데이터 활용 신서비스 개발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우수상 수상

동아대 학생들이 활발한 대외활동으로 각종 경진대회와 학술대회를 휩쓸었다. 어준혁 교육대학원생은 '2021년 대한민국 인재상' 산업설비 분야에 선정돼 교육부장관상을 받았다. 학술동아리 람다(LAMBDA) 신재생에너지팀은 '스마트 에너지 경진대회'에서 'MEHR(Magnetic Energy Harvester In Railway)'을 제작해 대상을 받았다. 성종우 AI학과 학생은 '제2회 CDS 빅데이터 경진대회'에서 사회과학 의료분야 대상을 차지했다.

이 밖에도 '2021 전력 빅데이터 활용 신서비스 개발 경진대회'에서 전기공학과와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이 최우수상(PV2EV 팀)과 우수상(에너지솔루션 팀)을 수상했다. 또한 전기공학과 4학년 송재원, 진채훈, 정부근 학생과 3학년 류동헌 학생은 '제10회 조명·전기설비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에서 '밤을 밝히는 태양광 LED 설치 프로젝트'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최옥조 교육학과 학생은 '제7회 부산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한국교통대학교 전자공학과 학생과 팀을 이뤄 '오일펜스를 활용한 지퍼형 유회수 로봇' 아이디어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건강관리학과 생체역학실험실 염창홍 교수팀의 박화영 연구원(박사졸업생)은 한국운동역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보행동결이 있는 파킨슨병 환자의 360° 회전 특성과 질병 심각도 간 연관성'이라는 논문을 발표해 최우수상을 받았다. 김정훈 기업재난관리학과 박사과정생은 '2021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논문 공모전'에서 '한국형 통합현장지휘체계'를 제안한 논문으로 우수상에 해당하는 한국안전학회장상을 받았다.

'제1회 한국트라이볼로지학회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에서 박성민, 김지훈 기계공학과 4학년 학생은 '반도체 평탄화 실험을 위한 소형 전기화학-기계적 평탄화(EMCP) 장치'를 출품해 우수상을 받았다. '2021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추계 국제학술발표대회'에서 황윤지 건축학과 3학년 학생은 '주민 공동체가 운영하는 도시재생 거점시설 현황 조사를 통한 해결방안 제안' 논문으로 학부생 학술대회 부문 수상자로 뽑혔다. '제52회 해양학술세미나 논문 공모전'에서 전지우 경영학과 3학년 학생은 '미래 해양리더십의 주역: 알파세대와 메타리더십'이란 논문으로 우수상을 받았다.

'2021 한국의류산업학회(SFTI) 국제학술대회'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를 냈다. 패션소재연구팀 진소규 박사과정생과 4학년 학부생 2팀이 우수논문발표상을 잇따라 수상했다. 또한 정서온, 김은희, 하창훈, 최재원 스마트헬스케어융합전공 학생들이 '2021 LINC+ 혁신선도대학연합 경진대회'에서 '신체재활 디지털케어 솔루션 ReHab'을 출품해 장려상을 받았다.

산업디자인학과는 '2021 환경부 2050 탄소중립 캠페인 홍보영상 공모전'에서 환경부장관상, '2021 천안시 도시디자인 공모전'에서 동상, '2021 경기도 공공디자인 공모전'에서 동상을 수상하는 등 재학생들이 전국 규모의 디자인 공모전에서 입상하는 활약을 펼쳤다.

건축학과는 '제34회 공간국제학생건축상' 특선, '제37회 부산국제건축대전 일반국제공모' 특선과 입선,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랜드마크 조성 아이디어 공모'에서 최우수상 등을 수상했다.

14

스포츠단·운동 동아리 등

각종 대회 우승 차지

태권도부 '제44회 한국대학태권도연맹회장기 전국태권도대회'에서 쾌거

동아대 스포츠단 운동부와 체육학과·태권도학과 학생들, 운동 동아리가 각종 대회에서 우승하는 쾌거를 올렸다.

스포츠단 레슬링부는 '제32회 추계 전국대학레슬링선수권대회'에서 자유형 단체 우승을 차지했으며 금메달 3개와 은메달 4개, 동메달 3개를 획득했다. 또 지도자상(김기중 감독)과 최우수선수상(홍상혁)도 가져왔다.

태권도 부문에서의 활약도 눈에 띄었다. 스포츠단 태권도부는 '제44회 한국대학태권도연맹회장기 전국태권도대회'에서 금메달 3개와 동메달 4개를 획득, 남자대학부 종합 2위를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서 김민석(-74kg), 이행석(-63kg), 박상훈(+87kg) 선수는 금메달을 땄으며 전익상(-68kg), 이태건(-80kg), 이주형(-68kg), 박은지(-67kg) 선수는 동메달을 품에 안았다. 또 스포츠단 태권도부 박상훈 태권도학과 3학년 선수는 '2021 KTA 파워태권도 최강전 파이널 대회'에서 +75급 1위를 차지했다.

태권도학과 품새단 소속 학생들은 '제20회 여성가족부장관기 겸 제19회 한국여성태권도연맹회장배 전국태권도대회'에서 여자대학부 단체전 1위를 차지하는 등 좋은 성적을 거뒀다. 동아대 태권도 시범단은 국기원 국가대표 3명을 배출했고 최근 열린 '제17회 무주 웰빙 태권도 축제'에서 1위를 휩쓰는 기염을 토했다. 조민이, 노규보 태권도학과 3학년 학생과 전영동 태권도학과 2학년 학생은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 선발에서 1차 영상 실기평가, 2차 대면 실기평가를 거쳐 국가대표로 뽑혔다.

이 밖에도 스포츠 동아리에서 다양한 성과가 있었다. 동아대 산악부는 '제53회 대통령기 전국등산대회'에서 남자대학부 1위를 차지했다. 미식축구 동아리 '레오파즈'는 '2021년 부산·울산·경남 미식축구 추계 선수권전'에 이어 제61회 전국 대학 미식축구 선수권전에서도 우승을 차지했다. 레오파즈는 국내에 미식축구가 생소하던 1976년 6월 10일 한강이남 대학 최초로 창단, 전국대회에서 수차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15

학군 동문 역사상 다섯 번째 장군 탄생 등

동아대 동문 활약 눈길

(왼쪽부터) 강부봉 동문 육군 대령에서 준장으로 진급 / 이동윤 동문(오른쪽) '2021 지역신문 컨퍼런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상

동아대 동문들이 사회 각계각층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체육학과 91학번이자 학군단(ROTC) 33기 출신인 강부봉 육군 대령은 준장으로 진급해 학군 동문 역사상 다섯 번째 장군이 됐다. 강부봉 준장 진급자는 1995년 보병 소위로 임관, 26년간 특전사 중대장, 육군대학 교관, 사단 작전참모, 군단 작전과장, 연대장 및 사단 참모장, 육군본부 작전과장 등 야전부대와 정책부서에서 지휘관과 작전 관련 직책을 역임했다.

동아대 경영대학원 MBA(석사학위과정) 54기 성석동 수영주택건설(주) 대표이사는 은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성 회장은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훈장 시상식에서 국민 주거수준 향상과 주택산업 발전을 위해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수훈자로 선정됐다. 또한 다우이스트 기프트(DAUist Gift) 고액 릴레이 주자 46호로 1,000만원을 기부하기도 했으며, 1억 원 이상 고액기부자 모임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기도 하다.

대학원 기업재난관리학과 국내 제2호 박사인 유재룡 동문은 한국정책개발학회에서 주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상을 받았다. 유 동문은 한국정책개발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경제위기대응 시스템에서의 리질리언스 구성요소 적용과 지역 경쟁력 확보 및 선순환 체계 구축'이라는 논문을 발표해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상을 수상했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동문인 이동윤 국제신문 기자는 부마민주항쟁 다큐멘터리 영화로 지역신문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주최로 열린 '2021 지역신문 컨퍼런스'는 올해로 14회째를 맞았으며 미디어커뮤니케이션 13학번 출신인 이 기자는 장편 다큐멘터리 영화 '10월의 이름들'로 최고상인 대상(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최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
시대의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이며
오랜 노력 끝에 얻은 첫 결실을 뜻한다.
동아대학교 교육학과 81학번이자
학군단(ROTC) 23기인
남영신 장군은 창군 이래
최초로 비(非)사관학교 출신
육군참모총장이 됐다.
서열과 출신에서 벗어나 능력과
인품을 고려한 최초의 등용에
이름을 남긴 남 총장을 만나봤다.

INTERVIEW 01

최초의 기록을 넘어 모교 제2의 전성기 위한 거름이 되다

교육학과 81학번, 학군단(ROTC) 23기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소통에 적극적인 리더가 되길

지난 2020년 9월, 학군 출신 최초로 제49대 육군참모총장에 임명된 남 총장은 ‘더 좋은 육군·더 강한 육군’을 건설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힘써오고 있다. 코로나19로 안전과 방역에 예민해 장병들의 건강을 지키며 강하고 미래지향적인 육군을 만드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혁신은 반드시 필요했다.

“국방정책을 더욱 체계적이고 탄탄하게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받아들이려면 많은 시간과 노고가 필요하겠지만 제가 군생활의 철학으로 삼았던 ‘본립도생(本立道生: 근본이 확립되면 도가 자연스럽게 생겨난다)’의 정신을 되새기며 각오를 다집니다. 앞으로도 서두르지 않고 육군 문화를 혁신해 나가려고 합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승학캠퍼스에서 열린 ‘학군단 리모델링 기념행사’에서 후배 학군 후보생들에게 특강을 펼쳤다. ‘소대원에게 희생하며 감성으로 부대를 지휘하는 리더가 되기를 바란다’는 남 총장의 당부가 가득 울려 퍼진 시간이었다. 끊임없이 소통하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인재가 되길 바란다는 그의 강연을 들으며 후보생들은 눈을 반짝였다.

“상대의 마음을 읽으려면 나이와 세대를 뛰어넘어 스스럼없이 소통해야 합니다. 저는 후보생들을 만날 때마다 ‘앞으로 좋은 리더가 되려면 권위의식을 내려놓고 소통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진정한 소통을 통해 세상의 변화를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리더의 넓어진 시각은 발전된 조직을 만드는 발판이 됩니다.”

동아대 제2의 전성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ROTC 최초의 백골부대 사단장, 특전사령관, 지상작전사령관, 초대 안보지원사령관을 거쳐 지금의 자리에 오기까지 힘든 순간도 많았다. 그때마다 남 총장은 학군단 시절 배웠던 군인으로서의 끈기와 소명감을 떠올렸다.

“대학시절 합창단 동아리에서 활동한 덕에 입학식, 졸업식 등에 참석해 교가를 부를 일이 많았습니다. 교육학과에서 과대표로 활동하면서는 각종 교내 행사에 참석했는데 선배가 후배에게 전통을 가르쳐주는 모습에 가슴이 뜨거워지곤 했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학군단원이라는 자부심과 다양한 경험이 동아인이라는 소속감과 강한 뿌리를 만들어줬고 고난과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을 갖게 해줬습니다.”

동아대 학군단은 서울에 동문회를 만들어 운영하는 등 돈독한 유대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동문회와 꾸준히 교류하며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남 총장은 크고 탄탄한 동아대의 힘에 항상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

“모교 교수님과 직원, 동문 선후배님들의 많은 도움으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받은 많은 관심과 도움을 모교 발전과 사랑하는 후배들을 위해 돌려주고 싶습니다.”

고령화와 인구절벽, 저성장 등 미래사회에는 다양한 위기가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남 총장은 동아인이 한마음이 돼 모두가 십시일반(十匙一飯)의 마음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간다면 더 큰 성장을 이룰 것이라 믿는다. 동아대가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남 총장 역시 동문들과 함께 물심양면 동아대의 성장을 응원하겠다는 마음을 밝혔다.

INTERVIEW 02

학교의 자랑에서 사회의 기적 같은 인재로

의과대학 91학번
정동식 의학과 교수
(동아대학교병원 감염내과)

창의적으로 위기를 극복하다

정 교수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낼 동문들을 걱정하며 인터뷰를 시작했다.
"동문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걱정이 많을 거예요. 곧 독감처럼 통제 가능한 시기가 올 테니 희망을 잃지 말고 조금만 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2020년 1월에는 늦은 밤 창밖을 바라보며 고민도 많았지만 동아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로, 감염관리실장으로서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때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서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지속되겠다는 판단이 들었고, 발 빠르게 대응했어요."
현재도 정 교수는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와 백신 이상 관리 등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사회가 공포 분위기일 때는 영상 제작에도 참여했다.
"처음에는 병원 직원들을 위해 시작했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다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작은 실천이지만 전문가로서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중증병상에 입원하거나, 상태가 나빠지는 환자들을 보면 안타까울 때도 있다. 하지만 상태가 호전돼 외래로 찾아오는 환자들을 보며 큰 원동력을 얻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위기인 만큼 창의적으로 접근했습니다. 그 만큼 민감하게 현장을 파악하고 조치하는 것이 중요했죠. 다행히 좋은 선례가 돼 다른 병원에서도 방침으로 쓰인다는 소식을 들으면 보람을 느낍니다."

최선을 다해 영광을 돌리다

정 교수는 지속적인 감염예방 활동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에 기여한 공(功)으로 지난 2020년 개교기념식에서 공로상을 받기도 했다. 수상 소감에 대해 묻자 그는 무엇보다 죄송한 마음이 컸다고 했다.
"감염관리실 팀원과 중증병상 간호사들, 동아대 학장님들과 학생처장님 등 함께 고생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받아도 될지 많이 망설였는데 앞으로 더 노력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학생 때부터 이어온 모교와의 긴 인연은 정 교수에게 큰 밑거름이다.
"4년 동안 학비를 마련하고자 과외와 학업을 병행하다 보니 여유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닐 수 있는 학교가 있다는 것에 늘 감사했고,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상대방과 협력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정 교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어릴 때부터의 좌우명으로, 일을 맡으면 더 좋은 쪽으로 발전시키려다 보니 일벌레가 된 적도 있다며 웃었다. 또 다른 좌우명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이다. 이는 지난 2008년 희귀한 급성백혈병 진단으로 위기를 넘기면서 하게 된 결심이다.
"많은 분들의 노력과 기도로 기적처럼 살았으니 그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영광에 먹칠하지 않으려고 더 열심히 살았어요."
후배들이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인재가 되길 바란다는 정 교수는 의료진으로서 애정 어린 당부의 말도 덧붙였다.
"마스크 착용과 방역수칙, 모임도 비대면 방식을 활용한다면 코로나19로부터 나와 주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늘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정 교수의 모습은 앞으로도 동아대의 자랑이 될 것이다.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고,
백신과 방역 수칙 준수 등
일상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다.
특히 의료진들에게 2년이 넘는
시간은 긴장의 연속이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모교에 대한 기여로
매일 바쁘게 보내고 있는
정동식 교수를 직접 만나봤다.

모교에서 받은 사랑, 후배들에게 전하다

2022 한국프로야구 신인선수 선발
김재혁, 오승택, 이세호 프로야구 선수

INTERVIEW 03

단합력이 만든 감격의 순간

동아대 야구부 출신 김재혁, 오승택, 이세호 선수가 지난해 12월 승학캠퍼스 총장실을 찾았다. 프로야구단 입단 전 야구부 발전기금을 기부하기 위해서였다. 세 선수는 선발 당시의 벅찬 기쁨을 소감에 담아 전했다.

'대학 최강 타자'라는 평가를 받으며 대학선수 1순위로 삼성 라이온즈의 선택을 받은 김 선수는 "예상보다 높은 순위로 지명돼 얼떨떨했는데 동료들의 축하를 받으며 실감했다"며 "야구선수라면 누구나 꿈꿔왔던 순간이기 때문에 너무나 좋았다"고 했다.

하늘의 별 따기처럼 느껴졌던 프로선수 지명에 가족과 부둥켜안고 울며 기쁨을 나눴다는 오 선수는 "입단하게 된 팀이 NC 다이노스라서 더욱 영광이다"며 간절한 마음을 전했다.

이 선수는 "주변 사람들의 축하에 정신없이 지나갔다"며 "부모님을 비롯해 고마운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특히 세 선수는 입을 모아 "지금까지 믿어주고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준 이재헌 감독과 권동식, 최대성 코치는 가장 감사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1948년 창단을 시작으로 동아대 야구부는 각종 대회에서 수차례 우승했다. 이동욱 NC 다이노스 감독, 현역 이정용 선수(LG 트윈스), 신본기 선수(KT 위즈) 등 큰 활약을 펼치는 프로야구인도 많다. 세 선수에게 동아대 야구부만의 강점을 묻자 기다렸다는 듯 대답이 돌아왔다.

김 선수와 오 선수는 "오랜 역사를 가진 야구부가 자랑스럽다"며 '남다른 단합력'과 '밝은 훈련 분위기'를 강점으로 꼽았다. 이 선수는 "동아대 야구부가 응집력이 있는 만큼 앞으로도 더 좋은 팀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라운드에서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학교 야구부에서의 잊지 못할 에피소드도 많다. 김 선수는 지난 2018년에 열린 전국체육대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다른 팀들의 실력이 쟁쟁했는데 모두가 하나로 뭉쳐서 결국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오 선수는 "중요한 전국 대회였는데 경기가 잘 안 풀렸다"며 "그런데 감독님과 코치님이 '잘하고 있다, 못해도 괜찮다'고 말씀해주셔서 다시 좋은 경기력을 발휘했다"며 큰 위로가 됐던 순간을 떠올렸다.

세 선수는 야구부 발전기금 1,700만 원을 기부하며 높아진 위상에 의미를 더했다. 기부 계기로는 "학교의 많은 지원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었다"며 "보답할 수 있어 영광"이라고 했다.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당부의 말도 덧붙였다. 김 선수는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힘들겠지만 버티고 이겨낸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오 선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며 후배들을 응원했다. 마지막으로 이 선수는 "매순간 후회 없는 하루를 보내 자신이 노력한 만큼의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후배들이 그라운드에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세 선수의 대답에서 그라운드에서 다시 만날 선후배의 모습이 그려지는 듯했다.

지난 학교생활을 돌아보며 다시 한 번 모교에 감사함을 전한 세 선수는 "앞으로도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남겼다.

올해부터 프로야구팀 유니폼을 입게 된 세 선수는 각자 다른 팀에서 활동하게 된다. 하지만 학교를 사랑하는 같은 마음으로 더 큰 꿈을 펼쳐갈 것이다.

삼성 라이온즈
김재혁 선수

'2022 한국프로야구(KBO) 신인선수 선발(드래프트)'에 동아대가 1차와 2차를 통틀어 전국 대학 중 최다 인원이 선발되는 쾌거를 올렸다. 그 자랑스러운 기록의 주인공은 바로 김재혁, 오승택, 이세호 선수이다. 세 선수는 입단 계약 후 모교에 기부금을 전달하며 후배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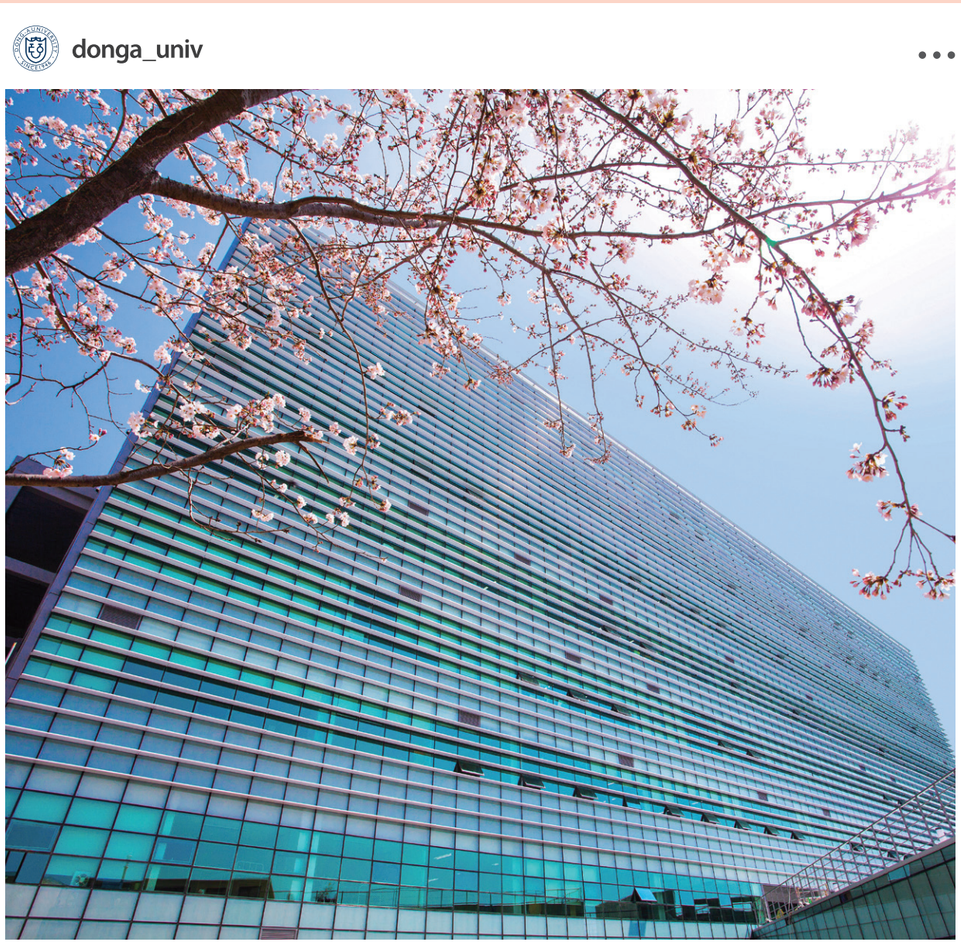
NC 다이노스
오승택 선수

키움 히어로즈
이세호 선수

Donation News

**소중한 손길로 이어가는 아름다운 마음,
동아의 기쁨이 됩니다.**

따뜻한 마음과 정성 어린 손길이
동아를 크게 키웠습니다.
또 하나의 사랑이 되어 곳곳에 스며든
당신의 마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구자봉 리우개발(주) 대표이사
학교 발전기금 1억 원 쾌척

지난해 10월 21일 구자봉 리우개발(주) 대표이사가 모교인 동아대학교에 학교 발전기금 1억 원을 쾌척했다. 관광경영학과 82학번인 구 대표는 총동문회 상임임원을 맡아 동문회 발전에 힘쓰고 있다. 구 대표는 전달식에서 "앞으로 모교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아대는 개교 100주년에 대비해 '동아100년동행', 소액 정기기부 프로젝트 '만만한 도전' 등 다양한 발전기금 모금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동문단체 및 교내구성원, 가족기업, 독지가들의 기부가 잇따르고 있다.

(왼쪽부터) 이해우 총장, 구자봉 리우개발(주) 대표

이이근 (주)대성메탈 회장
학교 발전기금 2,000만 원 기부

이이근 (주)대성메탈 회장이 학교 발전기금 2,000만 원을 기부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이복근 사장과 함께 승학캠퍼스 총장실을 방문해 이해우 총장에게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이 회장은 전달식에서 "동아대 AMP(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41기를 수료한 인연으로 학교 전체의 발전을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모범적인 기업경영으로 부산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녹산 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화합과 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2015년 부산광역시장 표창장을 받기도 했다.

(왼쪽부터) 이이근 (주)대성메탈 회장, 이해우 총장, 이복근 (주)대성메탈 사장

김신 석좌교수
법학전문대학원 발전기금 1,000만 원 기부

대법관 출신 김신 석좌교수가 지난 1월 5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발전기금 1,000만 원을 기부했다. 부산 서구에서 열린 발전기금 전달식에서 김 석좌교수는 "로스쿨 발전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싶었다"며 "후배 법학도들이 사회에 유익한 법조인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석좌교수는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울산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한 후 2012년부터 6년간 대법원 대법관을 지냈다. 대법관을 퇴임한 2018년 9월부터는 동아대 석좌교수로 후학을 양성하며 활발한 저술활동을 펼치고 있다.

(왼쪽부터) 송관호 법학전문대학원장, 이해우 총장, 김신 석좌교수, 노미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기수 석당박물관장
박물관 발전기금 1,000만 원 기부

김기수 동아대 석당박물관장(건축학과 교수)이 박물관 발전기금 1,000만 원을 기부했다. 김 관장은 동아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교토공예섬유대학 건축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은 뒤 2001년부터 모교로 부임해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지난 2019년 2월부터 석당박물관장을 맡고 있는 김 관장은 지역사회에 친근하게 다가가는 박물관을 만들고 있다. 승학캠퍼스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발전기금 전달식에서 김 관장은 "대학과 석당박물관 발전에 힘을 보태고 싶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김기수 석당박물관장, 이해우 총장

이가언 간호학과 교수
간호학과 발전기금 1,000만 원 기부

이가언 간호학과 교수가 학과 발전기금 1,000만 원을 기부했다. 지난 2001년 동아대에 부임한 이 교수는 올해로 21년 째 후학을 양성 중이다.
이 교수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내가 먼저 반가운 소식을 전해 보자는 생각이 들었다"며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다가 학과와 학생들을 위한 기부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지난 1996년 의과대학 산하에서 제1회 신입생을 받기 시작한 간호학과는 2019년 간호학부로 승격했으며 간호교육인증평가에서 높은 수준의 간호교육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

(왼쪽부터) 이가언 간호학과 교수, 이해우 총장

서금홍 건축학과 교수
건축학과 발전기금 1,000만 원 기부

서금홍 건축학과 교수가 학과 발전기금 1,000만 원을 기부했다. 서 교수는 지난 2018년 벤처기업 '공간재생플랫폼 링크(Re_ink) 건축사사무소'를 설립해 4년간 운영한 사업 수익을 기부해 의미를 더했다.
동아대를 졸업하고 건축사사무소 홍, (주)해양도시연구소 대표를 역임한 서 교수는 지난 2008년부터 모교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서 교수는 "교수로서 제자들과 함께 현장 실무를 병행할 수 있는 기회를 준 학교와 학과에 조금이나마 보은하고자 기부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서금홍 건축학과 교수, 이해우 총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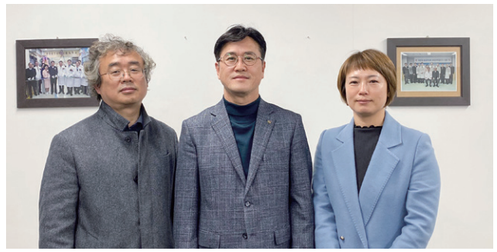
이성수 체육학과 교수
스포츠과학연구소 발전기금 1,000만 원 기부

이성수 체육학과 교수가 스포츠과학연구소 발전기금 1,000만 원을 기부했다. 동아대 스포츠과학연구소는 지난 1982년 설립돼 스포츠의 과학화로 경기력을 향상, 국민체력증진 기여를 목적으로 건강운동프로그램 개발과 다양한 질병에 대한 예방의학적 운동의 효과 등을 연구하고 있다.
발전기금 전달식엔 이 총장과 이 교수, 신기옥 체육학과 교수(스포츠과학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동아대에서 학사와 석사, 박사 학위를 모두 받은 이 교수는 지난 2005년부터 모교에서 강의를 시작해 2012년부터 조교수(강의전담)로 근무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성수 체육학과 교수, 이해우 총장, 신기옥 체육학과 교수

홍영습 교수 등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3명
동아500PLUS 발전기금 기부

홍영습·김병권·손현진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동아500PLUS' 발전기금 500만 원을 기부했다. 적립된 기금은 코로나19 극복 장학기금과 교육환경개선기금 등에 활용된다.
홍 교수는 "예방의학교실 교수 3명이 매월 10만 원씩 적립한 금액 중 500만 원을 예방의학교실 이름으로 기부했다"며 "대학 발전기금에 참여하게 돼 영광이다"고 했다. 동아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은 지난 1987년 개설 이후 환경·역학·보건의료관리 분야에서 선도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등 대학의 위상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병권, 홍영습, 손현진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한상근 헬스원 대표
체육학과에 2,700만 원 상당 스마트헬스케어 기구 현물기부

한상근 헬스원 대표가 2,700만 원 상당의 스마트헬스케어 기구를 기부했다. 한 대표가 기부한 트레드밀(스마트 러닝머신) 2대와 그룹운동 모니터링 시스템, 심박측정기 등은 동아대 예술체육대학1관 체력 측정실에 설치됐다.
한 대표는 "동아대와 산학협력을 통해 공동 연구활동을 하면 스마트헬스케어 산업에서 여러 파급효과가 기대된다"며 "대학의 연구 활동과 학생 역량 강화 및 사회 진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우진희 예술체육대학장, 한상근 헬스원 대표

김은호 보은이엔씨(주) 대표
축구부 발전기금 1,500만 원 쾌척

김은호 보은이엔씨(주) 대표가 스포츠단 축구부 발전기금 1,500만 원을 기부했다. 김 대표는 동아대 환경공학과 석·박사를 졸업한 뒤 환경오염 방지시설과 환경 관련 인·허가 및 컨설팅, 환경영향평가 등의 사업을 진행하는 환경 분야 종합건설업체 보은이엔씨(주)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K5리그 부산·경남 최정상 아마추어 축구 선수단 '김해재믹스축구클럽' 회장이다.
김 대표는 "동아대 축구부 선수들이 더 큰 무대에서 활약하길 바란다"며 "앞으로 꾸준히 후배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이해우 총장, 김은호 보은이엔씨(주) 대표

프로야구 입단 김재혁·오승택·이세호 선수
야구부 발전기금 1,700만 원 기부

프로야구단에 입단한 스포츠단 야구부 김재혁(삼성 라이온즈), 오승택(NC 다이노스), 이세호(키움 히어로즈) 선수가 야구부 발전기금 1,700만 원을 기부했다. 동아대 야구부는 '2022 한국프로야구(KBO) 신인 선수 선발(드래프트)' 1차와 2차를 통틀어 전국 대학 중 최다 인원이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다.
이해우 총장은 "전통 있는 동아대 야구부가 프로선수를 배출해 영광이고 학교로서도 큰 자랑이다"며 "야구부가 발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에 나서겠다"고 격려했다.

(왼쪽부터) 이재현 야구부 감독, 오승택 선수, 이세호 선수, 이해우 총장, 김재혁 선수, 우진희 스포츠단장, 김대경 대외협력처장

조민지 육상선수
육상부 발전기금 200만 원 기부

조민지 육상선수가 모교 후배들을 위해 육상부 발전기금 200만 원을 기부했다. 지난 2021년 체육학과를 졸업한 조 선수는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전국대학육상대회 장대높이뛰기 부문에서 다수 입상했으며 현재 충주시청 소속으로 활약하고 있다.
조 선수는 "학교 지원으로 성장해 현재 실업팀에서 선수 생활을 하고 있다"며 "후배들이 나보다 더 훌륭한 선수가 돼 기부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혔다. 지난 1948년에 창설된 육상부는 김만호, 서말구 선수를 비롯해 꾸준히 훌륭한 선수를 배출하고 있다.

조민지 육상선수(충주시청 소속)

김병억 스텍 대표
경영대학 발전기금 릴레이 41호 기부

김병억 스텍 대표가 다우이스트 기프트(DAUist Gift) 고액 릴레이 기부 제41호 주자로 1,000만 원을 기부했다. 김 대표가 운영하는 '스텍'은 지난 1993년 설립되어 용접기 제조 및 용접자재 판매를 하고 있으며 저항용접기뿐만 아니라 ARC 용접기를 응용한 특수용접기 등 용접에 관련된 모든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김 대표는 동아대 경영대학원 MBA(석사학위 과정) 50기 동기회장 등을 맡으며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왼쪽부터) 김병억 스텍 대표, 김현준 경영대학장

박효철 GS코어 대표
경영대학 발전기금 릴레이 42호 기부

박효철 GS코어 대표가 다우이스트 기프트 고액 릴레이 기부 제42호 주자로 1,000만 원을 기부했다. 박 대표는 동아대 경영대학원 AMP 49기 수료 후 MBA 55기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다.
부산 강서구 화전산단에 위치하고 있는 GS코어는 선박엔진 부품, 풍력발전과 원자력발전 부품 등을 생산하며 꾸준히 내실을 다지고 있다.
박 대표는 "재학 중에 학교에 기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영광이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박효철 GS코어 대표, 김현준 경영대학장

신병탁 송원벤드 대표
경영대학 발전기금 릴레이 43호 기부

신병탁 송원벤드 대표가 다우이스트 기프트 고액 릴레이 기부 제43호 주자로 1,000만 원을 기부했다. 신 대표는 동아대 경영대학원 AMP 46기 수료 후 MBA 55기로 재학 중이다. 또한 조선소와 원자력발전소, 건설현장 등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는 송원벤드를 운영하고 있다.
신 대표는 "한창 배워야 할 학생들이 공부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발전기금이 유용하게 쓰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전상학 대외협력과장, 신병탁 송원벤드 대표, 김현준 경영대학장

김현묵 경안특수목재 대표
경영대학 발전기금 릴레이 44호 기부

김현묵 경안특수목재 대표(동아대 경영대학원 MBA 54기 원우회장)가 다우이스트 기프트 고액 릴레이 기부 제44호 주자로 1,000만 원을 기부했다. 김 대표는 앞서 동아대 경영대학원 휴게실에 원우들을 위한 친환경 책상을 헌물 기부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도전과 성취, 나누고 감사하라'는 생활신조를 바탕으로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에 보답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며 "기부문화가 전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김현묵 경안특수목재 대표, 김현준 경영대학장

심미화 근보 대표
경영대학 발전기금 릴레이 45호 기부

심미화 근보 대표가 경영대학 발전과 교육혁신을 위한 다우이스트 기프트 고액 릴레이 기부 제45호 주자로 1,000만 원을 기부했다. 동아대 경영대학원 MBA 제54기로 입학했으며 체육1부장을 맡고 있는 심 대표는 부산·경남에서 철구조물 제작설치 및 공장 신·증축 전문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심 대표는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늦게 학부과정을 마친 후 최근 동아대 MBA에 입학했다"며 "경영대 학생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고 싶어 기부하게 됐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심미화 근보 대표, 김현준 경영대학장

성석동 수근종합건설(주)·수영주택건설(주) 회장
경영대학 발전기금 릴레이 46호 기부

성석동 수근종합건설(주)·수영주택건설(주) 회장이 다우이스트 기프트 고액 릴레이 기부 제46호 주자로 1,000만 원을 기부했다. 성 회장은 2020년 3월 경영대학원 MBA에 입학해 현재 54기 상임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부산·경남 지역 향토기업인 수근종합건설(주)과 수영주택건설(주)을 운영 중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부회장과 대한주택건설협회 중앙회 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대한주택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제10대 회장 등을 맡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준 경영대학장, 성석동 수근종합건설(주)·수영주택건설(주) 회장

박동진 (주)대동석재 대표
경영대학 발전기금 릴레이 47호 기부

박동진 (주)대동석재 대표가 다우이스트 기프트 고액 릴레이 기부 제47호 주자로 1,000만 원을 기부했다. 건축석재 시공 전문기업 (주)대동석재를 운영하는 박 대표는 2020년 3월 동아대 경영대학원 AMP 54기로 입학해 2021년 2월 수료까지 수석부회장을 역임, 수료 후에는 회장을 맡았다. 박 대표는 "평소 학교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다"며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제 작은 정성이 경영대학 발전을 위해 소중히 쓰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김현준 경영대학장, 박동진 (주)대동석재 대표

김홍덕 한라정밀 대표
경영대학원 발전기금 1,000만 원 기부

김홍덕 한라정밀 대표가 경영대학원 발전기금 1,000만 원을 기부했다. 김 대표는 동아대 경영대학원 MBA 53기 회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경영대학 릴레이 기부 제40호 주자로 1,000만 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김 대표가 운영하는 한라정밀은 지난 1986년 설립된 조선 기자재 업체로 철의장 제품을 생산, 국내 조선소 및 해외에 공급하고 있다.
김현준 경영대학장은 "김홍덕 대표님 같은 분들 덕분에 동아대 경영대학원이 50여 년의 역사와 좋은 교육환경을 이룰 수 있었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김홍덕 한라정밀 대표, 김현준 경영대학장

103명의 개인 및 단체, 누적 15억여 원 조성 의과대학 발전기금 명예의 전당 제막식 개최

동아대 의과대학은 '발전기금 기부자 명예의 전당 제막식'을 지난해 12월 9일 개최했다. 구덕캠퍼스 의과대학 1층 로비에서 열린 행사에는 이동대 부총장과 박환태 의대 학장, 안희배 동아대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최근 새 단장한 의과대학 로비 서쪽 벽면에는 '기부자 명예의 전당'이 조성됐다. 명예의 전당은 네 구획으로 구성, 발전기금을 기부한 개인 또는 단체 이름이 새겨진 103개의 동판이 부착됐다. 발전기금은 지금까지 15억여 원이 누적, 조성됐다.

구덕캠퍼스 의과대학 1층 로비에서 열린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발전기금 기부자 명예의 전당 제막식'

동아리 중심 학생 봉사단 제8기 동아 재능기부봉사단 발대식 개최

동아대 학생·취업지원처는 지난해 12월 2일 승학캠퍼스 경동홀에서 '제8기 동아 재능기부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진행되는 제8기 동아 재능기부봉사단은 미술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봉사단을 비롯해 7개 동아리(동아대 응원단, 마음을 밝히는 사람들, 스트리츠, 사진예술연구회, 레오파즈, FLAT, F.G.C.) 등 8개 팀, 130여 명이 활동한다.
봉사단은 지난 2014년 전국 대학 최초 동아리 중심의 봉사단으로 발족해 지역 소외계층 멘토링, 행사 응원 및 공연, 전시, 헌혈 릴레이 등을 펼쳐왔다.

윤갑식 학생·취업지원처장(동아 재능기부봉사단장, 왼쪽에서 네 번째)과 제8기 동아 재능기부봉사단 동아리 대표들

미술학과 학생들 사하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 미술작품 전시

동아대 미술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동아 재능기부봉사단' 8기가 부산 사하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내에 작품을 전시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의 하나로 부산 사하구와 함께 '마중 나온 미술'전을 개최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및 대기자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주고 예방접종센터를 친근하게 방문할 수 있게 했다. 지난해 7월부터 연말까지 진행된 전시에는 지금까지 1~2차에 걸쳐 동아대 학생 30명이 참여, 동양화와 서양화, 디자인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선보였다.

동아대와 부산 사하구가 개최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내 '마중 나온 미술'전(제공=부산 사하구 홍티예술촌)

전기공학과 봉사 동아리 한빛 영도구 일대 골목길 태양광 LED 설치 봉사활동 펼쳐

동아대 전기공학과 봉사 동아리 '한빛' 단원들이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부산 영도구 일대에서 펼친 '골목길의 밤을 밝히는 태양광 LED 설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9명의 단원으로 이뤄진 '한빛'은 부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와 한국수력원자력(주) 고리원자력본부가 주관한 '제7회 소통고리 대학생 자원봉사 공모대전'에 당선돼 이번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한빛은 부산 영도구 영선2동 주민센터 및 영도경찰서와 협업해 영도구 일대 어두운 골목길 70여 곳에 태양광 LED를 설치했다.

봉사 동아리 '한빛' 학생들이 영도구 일대에서 펼친 '골목길의 밤을 밝히는 태양광 LED 설치 프로젝트'

기부로 밝아지는 동아대학교의 미래

지난 시간 동아대는 교육을 혁신하고
인재양성 인프라를 마련하기 위해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동아의 미래 발전에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아대학교 후원의 집이란

동아대학교 발전과 학생 복지 향상을 위해 매월 일정금액의 발전기금을 후원해주는 모범업소를 동아대학교 후원의 집으로 선정합니다.

가입대상 동아대학교를 사랑하고 발전을 기원하는 모든 업소 및 사업체

가입 시 혜택

- 후원의 집 명판 부착
- 기부금 영수증 발급
- 매년 명절 쌀·감 등 소정의 기념품 발송
- 동아대학교 달력 및 소식지 발송

발전기금 기부현황 (2021년 7월~2021년 12월)

단체

(재)동아문화재단
(주)교보문고
(주)대성메탈
(주)비에프씨씨
(주)신도시엔지니어링
(주)에듀피플스
(주)유디엠
(주)장가유통
(주)지앤지코퍼레이션
(주)태영건설
ROTC 동문회
경동건설(주)
경영대학원 석사 53기 일동
구덕회
도시계획학과 동문회
메디파워
법무법인 예인
산업공학과
스마트생산융합시스템공학과
식품영양학과 총동문회
은하수합동법률사무소
주식회사비티엑스모빌리티

후원의 집

(주)KB렌트카
(주)엠컴퓨터아카데미
(주)올북스
(주)이에스에스
거양꽃농원
금호횟집
누리마을감자탕
대궁삼계탕
대물림 청송집
대훈기획
더진국하단점
도리원
동경초밥
동래삼계탕
동원장수촌
밝은눈안과의원
본가사하점
산정
상록광고기획
선미집
성일숯불갈비
소담
송월타올
송이아구찜
아이시티안과의원
어심초밥
영의루
외갓집꼬리곰탕
우리집으로와
이가한우
이모식당
장시영살롱드뷰티
진선
초원복국
초유플라워
카플러스
콩불 동아대점
투썸플레이스동아대점
파리바게뜨부민점
하단돼지국밥
화국반점
흥부가

함께해 주신 분들

앞으로도 동아대는 역사와 전통 그리고 동아인들의 헌신을
가슴에 품고 더 밝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개인

강금순 강하승 권영삼 김남영 김민주 김성진 김용준 김주언 김태영 나진숙 문성병 박봉철 박재우 박현태 서명교 손석주 신상원
강기수 강향모 권영성 김남정 김민철 김성태 김우남 김주영 김태완 남경문 문영주 박상권 박재진 박형태 서미옥 손성훈 신상의
강나현 강혜진 권영준 김남희 김민하 김성현 김우현 김주오 김태우 남광호 문요한 박상목 박정국 박홍준 서상국 손세영 신성욱
강남욱 강호길 권영철 김노훈 김민형 김세훈 김위근 김주찬 김태원 남덕우 문정환 박상석 박정영 박환석 서석준 손수범 신성호
강다연 계민수 권영탁 김니은 김민희 김소란 김윤경 김준석 김태철 남명구 문진효 박상아 박종귀 박환태 서성구 손정순 신숙영
강대복 고도란 권오구 김달효 김범수 김소현 김윤원 김준성 김태현 남보현 문찬혁 박상욱 박종민 박효민 서성환 손정우 신승욱
강대선 고미경 권오근 김대경 김범지 김소형 김윤정 김준영 김태훈 남상돌 문철주 박상원 박종봉 박효철 서승원 손정한 신영아
강대성 고상만 권우정 김대영 김법렬 김수연 김윤진 김준우 김태희 남상설 문필성 박상혁 박종선 박희태 서신애 손종윤 신영완
강도영 고상석 권주영 김대욱 김병권 김수자 김윤희 김준찬 김판석 남승덕 문혜신 박상현 박종수 반성옥 서양숙 손창현 신용상
강동완 고성원 권중오 김대웅 김병립 김수정 김은경 김중완 김하나 남승현 문환웅 박서준 박종율 반한용 서영호 손태종 신용우
강동율 고수현 권태정 김대준 김병수 김수진 김은영 김지건 김학이 남윤성 민성채 박석강 박종현 방대종 서용진 손판도 신용택
강동일 고여경 권한용 김대중 김병억 김수현 김은주 김지나 김한새 남은희 민영기 박석주 박종훈 배길석 서우석 손현지 신용호
강동헌 고영남 권현규 김대진 김병조 김 숙 김은혜 김지만 김해주 남재성 민현선 박성범 박주상 배도정 서정미 손현진 신재봉
강동훈 고영라 권형준 김대현 김병준 김순돌 김은호 김지상 김향이 남지연 민혜숙 박성봉 박주현 배동고 서정우 손현태 신재욱
강래욱 고유석 권혜민 김대환 김병찬 김순진 김의도 김지숙 김 현 남찬섭 박건우 박성빈 박준석 배병욱 서정택 손형수 신정현
강명진 고윤성 권효철 김덕현 김병채 김승우 김인자 김지언 김현규 남창우 박경렬 박성일 박준형 배성한 서정화 손홍락 신정환
강명호 고윤준 권희진 김도경 김병현 김승일 김일영 김지영 김현묵 남현정 박경록 박성제 박준호 배우나 서주환 송강직 신중섭
강문성 고현규 기성훈 김도훈 김보경 김승태 김장현 김지현 김현수 노강민 박경만 박성지 박준홍 배종화 서준혁 송계선 신지용
강민경 고형종 김가은 김동섭 김보길 김승호 김재광 김지혜 김현우 노기호 박경미 박세영 박지연 배주용 서추연 송대성 신지윤
강민구 공경란 김건옥 김동수 김보람 김승희 김재연 김진경 김현주 노명환 박경식 박소연 박지용 배지영 서해용 송명근 신창엽
강민재 공미정 김건우 김동연 김보배 김시동 김재우 김진곤 김현준 노상우 박경우 박수천 박지윤 배진경 서현권 송모란 신현범
강민지 공병민 김경민 김동우 김보연 김시범 김재한 김진길 김현중 노영진 박경원 박수철 박지은 배한숙 서현준 송민정 신호국
강민희 공병영 김경배 김동준 김보준 김 신 김재현 김진만 김현진 노영훈 박경환 박수호 박지해 배형우 서화영 송범준 신호민
강병기 공윤경 김경우 김동진 김복남 김아영 김재홍 김진석 김형기 노옥희 박광원 박순달 박지현 백건희 서희경 송성훈 신흥기
강봉순 공혜경 김경태 김동현 김봉진 김아현 김점수 김진수 김형록 노주섭 박광춘 박순영 박지혜 백경숙 석경숙 송시영 신희진
강상모 공희원 김경화 김동환 김부종 김애희 김정곤 김진아 김형빈 노창현 박광휘 박순우 박진억 백경원 석민서 송유진 심미화
강상훈 곽광우 김경희 김동훈 김상림 김양곤 김정규 김진용 김형석 노춘근 박규한 박승종 박진영 백동원 선정애 송은화 심성희
강석우 곽길수 김광란 김동희 김상봉 김양이 김정대 김진욱 김형진 노해성 박기상 박시윤 박진철 백상훈 설남종 송정랑 심영규
강성원 곽도영 김광열 김두진 김상열 김연국 김정미 김진웅 김형철 노현숙 박기현 박신향 박진홍 백승우 설영진 송종목 심재후
강성윤 곽도훈 김 구 김두현 김상엽 김영근 김정민 김진원 김혜경 노현욱 박넝쿨 박언주 박차원 백영기 설형수 송진영 심형열
강성진 곽동우 김구연 김득용 김상준 김영미 김정석 김진형 김혜란 노희관 박달해 박영란 박찬규 백정성 성기근 송창호 안경순
강영조 곽명서 김권호 김만재 김상진 김영민 김정선 김진홍 김혜숙 도규완 박대웅 박영일 박찬민 백종국 성기록 송형기 안기범
강용진 곽미진 김규범 김명기 김상태 김영선 김정아 김진효 김혜영 도동오 박동민 박영준 박창구 백차승 성낙균 송흔춘 안길용
강원배 곽민규 김규준 김명범 김상현 김영우 김정한 김진후 김혜정 도선영 박동진 박영태 박창범 백희자 성낙용 송희은 안나현
강원호 곽선화 김규한 김명수 김상호 김영일 김정호 김진희 김혜진 도영화 박명숙 박영후 박창수 변경도 성낙창 신경미 안남재
강은미 곽은희 김근민 김명숙 김상효 김영주 김정화 김차름 김호룡 라광현 박미경 박용기 박창순 변상민 성병찬 신경탁 안목련
강은혜 곽형린 김근우 김명종 김 석 김영준 김정훈 김찬희 김홍덕 류관호 박미나 박용섭 박창열 변선영 성봉자 신경호 안미혜
강이래 구강인 김기률 김명주 김석언 김영진 김정희 김창석 김 환 류단비 박미란 박용성 박창호 변성우 성석동 신계현 안새봄
강재신 구관회 김기수 김문범 김석지 김영하 김종국 김창오 김환봉 류미향 박미옥 박유영 박채오 변성지 성세환 신기옥 안성률
강정호 구자봉 김기영 김미란 김석현 김영헌 김종렬 김창완 김회경 류민호 박미정 박유진 박철현 변성철 성수현 신대용 안승광
강정화 구종환 김기원 김미영 김선규 김영호 김종목 김창준 김효근 류순식 박미향 박윤경 박철홍 변성호 성이용 신미경 안신정
강정희 권기향 김기중 김민경 김선미 김영환 김종민 김창환 김효성 류승훈 박미혜 박윤호 박춘래 변영철 성재현 신 민 안양진
강종훈 권동식 김기철 김민규 김선익 김영훈 김종식 김창훈 김효준 류용주 박민선 박은경 박태위 변종석 성재희 신민준 안영석
강주용 권명수 김길성 김민석 김성기 김예슬 김종욱 김창희 김 훈 류윤아 박민성 박은국 박한솔 변행석 성지현 신병준 안영주
강준원 권민지 김길조 김민섭 김성돈 김예주 김종운 김채수 김희경 류은영 박민수 박은정 박한신 부홍순 성홍재 신병탁 안원석
강지연 권병옥 김나랑 김민수 김성동 김오연 김종준 김철권 김희돈 류을현 박병권 박은주 박해일 사정훈 손경석 신봉준 안일선
강지현 권성길 김나현 김민영 김성렬 김완수 김종혁 김춘영 김희선 류지희 박병규 박인식 박해지 서광민 손광석 신부삼 안정수
강진주 권순일 김남국 김민원 김성림 김완중 김종현 김태근 김희정 문건주 박병형 박일근 박현우 서대관 손민근 신상문 안정화
강태윤 권영군 김남균 김민재 김성목 김용기 김종훈 김태석 김희준 문병진 박복자 박장식 박현정 서동균 손병구 신상열 안주현
강태홍 권영근 김남수 김민정 김성재 김용원 김주락 김태수 나 웅 문선영 박봉경 박재군 박현주 서동현 손상현 신상용 안중기

개인

안태규 오응수 유호재 이경용 이병관 이아희 이재형 이태철 임형준 전재혁 정성훈 정현진 조화제 최대성 최정호 한경문 홍서영
안태형 오인석 윤갑식 이경우 이병기 이애경 이재홍 이필우 임혜진 전정순 정수진 정형일 주석민 최동원 최정훈 한경훈 홍성박
안혜령 오임숙 윤귀성 이경운 이병선 이양복 이재훈 이하늬 임홍석 전주환 정수희 정혜선 주성식 최문환 최종국 한규석 홍순구
안효성 오주성 윤금주 이경학 이병훈 이영근 이정관 이해우 장기철 전찬권 정승민 정호광 주인석 최미리 최준환 한기수 홍순권
안효익 오지영 윤대원 이경환 이보경 이영민 이정규 이해인 장기현 전찬민 정승봉 정호균 주인숙 최미숙 최지수 한덕희 홍순환
안희배 오진환 윤만희 이경훈 이보람 이영웅 이정란 이헌경 장말순 전해수 정승아 정호원 주재헌 최미옥 최진희 한동국 홍영습
양건석 오창일 윤미정 이경희 이보희 이영춘 이정만 이 현 장문석 전효정 정예스더 정 훈 주차돈 최민아 최찬호 한동섭 홍용석
양동춘 오현택 윤민수 이고은 이상근 이영호 이정복 이현경 장문재 전효철 정연봉 정희원 주현빈 최민철 최창윤 한명석 홍자영
양미자 오흥민 윤 별 이광식 이상도 이영환 이정웅 이현섭 장 미 정강재 정연빈 제갈진우 주현옥 최병열 최창현 한세억 홍지원
양상섭 옥 민 윤별아 이국환 이상룡 이예림 이정은 이현세 장병일 정경미 정영균 제주한 주형준 최병욱 최케이 한송희 홍현두
양석동 옥수선 윤상우 이권희 이상민 이옥경 이정재 이현호 장병찬 정경환 정영록 조경근 주환명 최병일 트고은 한승호 홍혜정
양성우 옥순상 윤상일 이규완 이상배 이옥부 이정화 이현희 장상목 정귀선 정영삼 조규판 지강이 최보훈 최하나 한영립 황경원
양성원 왕 립 윤상헌 이규필 이상봉 이용발 이정훈 이형석 장선희 정규식 정영수 조규희 지명하 최봉환 최현경 한정미 황경화
양신우 왕 민 윤석기 이근출 이상엽 이용석 이종민 이혜민 장세준 정기욱 정영진 조기영 지선자 최상석 최현석 한정섭 황 국
양재권 왕승민 윤석종 이기성 이상완 이용원 이종서 이혜숙 장세훈 정기자 정영현 조동길 진경천 최상윤 최현중 한정혜 황규철
양재호 용성준 윤성국 이기철 이상원 이용주 이종철 이혜원 장소라 정남기 정우열 조무제 진병래 최서현 최현태 한종원 황규홍
양정인 우동필 윤성수 이기혁 이상진 이용희 이종학 이호산나 장소영 정달식 정우진 조문형 진소영 최석훈 최형림 한준성 황기식
양주순 우미양 윤성욱 이기환 이서윤 이웅건 이종호 이호인 장승권 정대성 정우철 조미경 진영주 최선미 최형열 한지영 황덕기
양준위 우순자 윤성환 이기훈 이서정 이원구 이종화 이호재 장시영 정대영 정원화 조민성 진윤흥 최성문 최혜경 한진섭 황보한
양지훈 우연주 윤세련 이길원 이석봉 이원영 이주연 이호정 장옥정 정대일 정윤정 조민제 진재윤 최성수 최혜원 한치성 황부상
양혜리 우은정 윤아영 이나영 이석용 이원일 이주영 이호진 장윤창 정덕업 정은하 조범근 진종길 최세환 최혜정 함정임 황상모
양홍호 우진희 윤영준 이나현 이선우 이원호 이주용 이호철 장정표 정도희 정의제 조병섭 진주한 최수호 최호림 허경행 황선영
엄범섭 원동화 윤원용 이난희 이선전 이원희 이주현 이효균 장정환 정동근 정재경 조병준 진태훈 최순섭 최호석 허남인 황성모
엄윤수 원창선 윤은기 이남경 이선주 이유란 이준숙 이효종 장준봉 정동열 정재민 조봉현 차경천 최승환 최홍규 허만용 황성원
에비언 위순선 윤은주 이노성 이선하 이윤수 이준승 이흥재 장준오 정두화 정재선 조상호 차동환 최애은 최홍조 허미나 황순민
데이비스 유경규 윤인식 이대명 이선희 이윤지 이준호 이희영 장지현 정득헌 정재헌 조석봉 차민수 최영옥 최희선 허성란 황영식
여승현 유경탁 윤인한 이대성 이성구 이윤한 이중헌 이희원 장지환 정명철 정재현 조성식 차병철 최영익 최희원 허성우 황영정
여준호 유길준 윤재준 이대승 이성민 이은남 이지나 이희정 장지명 정무섭 정종철 조수자 차서현 최영일 추상욱 허수민 황영현
여태규 유나리 윤정웅 이도관 이성숙 이은숙 이지연 인정란 장진영 정미숙 정종혁 조아라 차영수 최영주 추성호 허연철 황영희
여호근 유동열 윤정한 이도현 이성우 이은영 이지영 임미경 장하림 정미옥 정종화 조애진 차윤석 최영진 추승학 허영민 황옥연
연진흠 유동훈 윤정현 이도환 이성욱 이은임 이지욱 임미숙 장해나 정 민 정종회 조양흠 차윤숙 최영호 탁규만 허영호 황원주
염정국 유미화 윤종애 이동대 이성철 이은정 이지운 임병찬 전경수 정민석 정준식 조연원 차재관 최영환 피찬훈 허우린 황의경
염창옥 유병철 윤종환 이동명 이성호 이은지 이지원 임상호 전계훈 정민준 정지분 조영운 차재용 최용수 하고운 허재복 황인성
오광옥 유성호 윤준호 이동본 이성훈 이익선 이지혜 임석순 전관수 정민호 정진아 조예분 차재윤 최우석 하광봉 허 정 황인종
오구환 유수영 윤지원 이동숙 이소연 이인용 이 진 임석준 전미라 정병수 정진영 조완섭 차종문 최우철 하기영 허진만 황자영
오대중 유슬아 윤진호 이동언 이수길 이인호 이진걸 임선희 전상학 정병찬 정진웅 조용언 차지혜 최 원 하기효 허진혁 황재용
오민홍 유승진 윤찬수 이동주 이수이 이일성 이진규 임시언 전선위 정보윤 정진희 조용주 채석용 최원도 하민호 허창환 황재윤
오상근 유영현 윤창민 이동준 이수호 이장욱 이진우 임영희 전성배 정봉석 정찬식 조원빈 채승지 최원준 하상현 허태회 황정후
오상민 유운희 윤창영 이동진 이승규 이장호 이진태 임옥근 전성욱 정봉식 정충훈 조윤빈 채종덕 최유준 하순금 허형록 황지연
오성배 유웅식 윤태영 이명진 이승용 이재강 이진형 임장범 전성웅 정상성 정태일 조장우 천미영 최은정 하승태 허혜숙 황지영
오성용 유재룡 윤해진 이명환 이승욱 이재동 이찬연 임정관 전성현 정상찬 정태호 조재구 천상명 최은희 하영봉 허혜영 황지원
오세경 유재열 윤현우 이무연 이승은 이재민 이창경 임정식 전소영 정상협 정태훈 조재현 천재림 최익준 하은희 현승목 황지현
오세찬 유재욱 윤훈용 이문정 이승재 이재성 이창수 임정준 전순덕 정석진 정해영 조정임 천현빈 최인숙 하장헌 현승용 황태규
오소라 유정옥 이가언 이문희 이승준 이재열 이창율 임지아 전아영 정선경 정해용 조함래 최광호 최일규 하정훈 현안나 황현규
오수연 유준성 이가영 이미랑 이승태 이재영 이창훈 임지현 전언찬 정선미 정향옥 조현옥 최구진 최임근 하주희 현연수 황혜선
오승현 유채은 이강배 이미선 이승현 이재욱 이철오 임지혜 전완수 정선영 정현욱 조현주 최규환 최재억 하진숙 현창욱
오승환 유현우 이강욱 이민우 이승형 이재원 이철우 임진규 전용기 정설현 정현민 조현준 최금찬 최재영 하창훈 형민아
오영훈 유형욱 이 건 이민원 이승희 이재은 이충석 임진혁 전용후 정성규 정현석 조형열 최금화 최재웅 하춘목 홍기용
오윤석 유혜린 이경님 이민혜 이시은 이재진 이충섭 임현석 전은영 정성욱 정현욱 조혜정 최기혁 최재호 하현주 홍남식
오은미 유혜영 이경열 이민호 이신영 이재헌 이태광 임형규 전재국 정성원 정현일 조홍률 최낙진 최정현 하형주 홍상혁

만만한 도전

1만 원의 작은 마음이 모여 감동적인 변화를 이뤄냅니다.

문의 051-200-6012
Fax 051-200-6015
우편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550번길 37 동아대학교 대외국제처 대외협력과

동아대학교 발전기금 약정서

기본정보

성명 (기관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관계	☐ 일반 ☐ 동문 (입학연도 / 학과 · 과정) ☐ 학부모 ☐ 법인 ☐ 교직원		

약정정보

일시납 문의 051-200-6012

약정금액	매월 ( ) 만 원
기부목적	☐ 학교에 위임 ☐ 학과에 기부 (학과)

자동이체 정보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출금일	☐ 10일 ☐ 25일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

필수수집정보	**기부금 영수증 발급, 기부자 예우를 위한 필수 정보**	☐ 동의 ☐ 미동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약정금액, 납입방법, 기부목적	
선택수집정보	**학교와의 관계에 따른 맞춤식 예우 용도**	☐ 동의 ☐ 미동의
	학교와의 관계	
	학교 소식지 발송, 감사선물 발송, 행사 안내 등 기부자 예우 용도	☐ 동의 ☐ 미동의
	성명, 연락처, 주소	
제3자 제공정보	**제공 받는자 : 금융결제원(자동이체 납입 시)**	☐ 동의 ☐ 미동의
	성명, 생년월일, 은행명, 계좌번호, 결제일자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준영구 (기부자의 자료 삭제 요청 시 삭제 가능)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필수수집정보 수집에 미동의 할 경우 익명의 기부자로 등록되어 기부금 영수증 발급, 기부내역 조회가 불가하며 기부자 예우서비스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___ 년 월 일

기부권유자 : _____ 약정자 : _____ (인)

약정서 작성 후 사진으로 촬영해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TALK 카카오톡 실행 › 상단 검색버튼 › 동아대학교 발전기금 검색 후 채널추가

친구추가 QR

문의 051-200-6012
팩스 051-200-6015
이메일 fund@dau.ac.kr
동아대학교 DONG-A UNIVERSITY